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고정

## 평정심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마음



審 살펴갈 내일!  
: 살필 심

心 희망찬 마음=  
: 마음 심

深 뜻깊은 오늘+  
: 깊을 심

2019  
06

2019.06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화가 나거나 슬플 때도 많겠지만 순간순간에 동요하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에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평정심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교정> 참여 코너의 신청, 날말퀴즈 정답 응모, 독자 사연 & 독자 의견 송부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9년 6월호 (통권 517호) 63권 6호

[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http://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스토리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희망찬 마음 =

04  
마음을 열다

06  
테마를 넘다  
평정심, 고요한 수면의 마음

08  
사람을 읽다  
2019년 교정대상 수상 교정공무원

12  
역사를 품다  
링컨을 일으킨 좌우명  
수많은 고난에도 평정을 유지하다

14  
추억을 담다  
독자에게 들어 보는 '평정심'



# 深 入

뜻깊은 오늘 +

16  
교정은 행복을 싣고  
“이 빵 안에 꿈과 사랑을 담아 드립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  
영화 같은 하루  
새내기 연수생, 설레는 꿈과 포부 안고 파이팅 외치다  
제282기 교정직 9급 연수생

24  
일상 상담소  
지겨운 작심삼일 이제 그만하고 싶다면?

26  
마음 나침반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28  
시간을 달리는 교정  
서대문형무소의 참상을 목격하다

30  
여행 따라 잉글리쉬  
온화한 날씨의 북유럽 감성 충전소, 스웨덴  
+물건 대여 시 필요한 영어 표현

32  
신조어백과  
복세편살 & 자낳고

34  
글로벌 핫클릭  
스위스, 부끄러워서 죄짓고 싶지 않다는  
핑크 교도소 외



# 審 查

살펴갈 내일 !

36  
여민 교정  
2019 지방교정작품전시회

40  
HEADLINE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및  
2019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44  
교정 희망의 백일장 I  
아들아! 조바심은 잊고 현재의 행복을 찾아라

46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  
당당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48  
교정을 말하다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교정복지실천 개입에 관한 연구(下)

54  
미디어 돋보기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미디어에 비친 교정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56  
NEWS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63  
모범공무원 소개

64  
국민이 전하다  
범죄 저지른 아이들의 안내자

65  
낱말퀴즈

66  
독자의 소리



“기운은 강물은 돌을 집어 던져도 흐르지지 않는다.  
모욕을 받고 이내 벌컥 하는 인간은  
작은 웅덩이에 불고나라”

– 톨스토이(러시아 소설가) –

산에 가면 크기가 제각기 다른 돌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 놓은 돌탑이 보인다.  
돌의 무게중심을 맞추면 작은 돌 위에 큰 돌을 올릴 수 있다.  
바람, 비, 태풍 등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평정심’이 있다면 단단하고 넓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제 막 중턱을 넘어가는 시기, 평정심을 갖고 걸어온 만큼 똑같은 길이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어긋나지 않도록 중심을 세워 다시 한번 발걸음을 뗄 때다.

## 평정심, 고요한 수면의 마음

내가 지금껏 그 인품을 존경하는 분이 있다. 그 분은 나의 큰어머니이다. 큰어머니는 작고하셨지만, 나는 가끔 생전의 모습을 떠올린다. 왜소하고 작은 체구에 나이가 드셔서는 지팡이를 늘 짚고 다니셨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았다. 우리 집의 가난한 살림을 염려 하시던 분이셨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살폈고, 가끔은 부엌에 걸려 있던 우리 집 빈 솥에 먹을 것을 몰래 놓아두고 가셨다. 집에 오셔서는 앞마당에서부터 뒤란까지 집을 한 바퀴 돌 아보시고 당신의 집으로 가셨다. 나의 부모님이 사정이 생겨서 집에 계시지 못할 때에는 우리 집에 오셔서 어린 누나들과 나와 동생들 곁에서 잠을 주무셨다. 그야말로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다. 그런데 이런 작고 큰 일들의 고마움도 고마움이지만 큰어머니는 인품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다.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원만하고 덕스러운 큰어머니의 인품을 높이 생각했다. 큰어머니는 감정에 굴곡이 크지 않은 분이셨다. 단숨에 감정이 불처럼 끊어오르거나, 단숨에 감정이 내려앉는 일이 없었다. 늘 한결같이 잘 제어된 감정으로 사셨다. 자상한 말과 밝은 표정을 유지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이나 뒷말을 조금도 하지 않으셨다. 험담하는 말이 없었다. 불만이나 섭섭한 일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바깥으로 내색하지 않으셨다. 성품이 마치 연못의 고요한 수면 같았다. 움직이지 않는 산 같았다.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끝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꼭 같았다. 평정심, 그러니까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얻은 분이셨다.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외부의 충격적인 자극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의 강물처럼 혹은 기류처럼 흘러들어오고 유입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들어올 때에 우리는 물굽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류가 유입될 때에는 기상의 여진이 급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듯이 외부의 충격적인 자극은 하나님의 마음이 갖고 있었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만다. 뿐만 아니라 즉흥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되면 나와 남 모두에게 이익이 없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된다. 후회가 생겨나지 않을 리 없다. 제일 제어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화를 내는 일이다. 모든 종교가 분노를 끄라고 가르치는 이유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불교의 경전에는 이런 문답이 나온다.

“사람이 무엇을 제거해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버려야 고통을 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부처는 이렇게 대답한다.

“잔뜩 화가 나 있는 마음을 없애야 한다. 분노를 가라앉힐 때 비로소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화가 난 마음을 제거할 때 고통이 사라진다. 사람을 해치는 독의 근원은 화를 내는 마음이다. 화를 참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화를 내는 일은 행복을 없애는 일이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참기 어려운 욕됨이 있어도 받아들여서 웃어넘길 것을 가르치고, 비방을 비방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되갚음을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침묵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돋도했던 박목월 시인은 시 ‘아침마다 눈을’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빛 같이 신선하고/ 빛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다정한,/ 누구에게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있음으로/ 주위가 더 환해지는,/ 살며시 친구 손을 꼭 쥐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노래한다.

또 다른 시에서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거듭난 것이 썩지 않는 씨앗이 되어/ 지상에 평화”라고 썼다. 나는 이 시의 “거듭난 것이 썩지 않는 씨앗이 되어”라는 시구를 좋아한다. 마음이 늘 변함없이 깨끗하고, 사랑을 크게 베풀고, 이웃과 잘 어울려 지내는 이 일을 거듭해서 행하되 그 마음이 마치 “썩지 않는 씨앗”과도 같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시구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품을 높게 유지하되, 흔들리지 않고 시종 여일(如一)하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 또한 마음의 사용에 평정심이 있기를 기도한 것이라하겠다. 썩은 씨앗에서는 무엇이든 생겨날 수 없고, 연장될 수 없고, 결락이 생긴다. 있어야 할 부분이 빠져서 이내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다. 반면 썩지 않은 씨앗에서는 종결이 없다. 새로운 탄생만이 있을 뿐이다. 잘 제어된 마음 즉 평정심이 “썩지 않는 씨앗처럼” 잘 보호되고 유지된다면 무엇이든 번창만이 있을 뿐이다. 평정심을 소유한 인품에게는 모든 이들이 곁에서 힘을 보태 주려고 하고, 지지를 보내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평정심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이롭다고 하겠다. 잘 참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편안한 집에 사는 일이다. 그래서 잘 참는 인욕(忍辱)을 ‘신들의 갑옷’이라고 했다. 큰 바다에 격랑이 일 때도 있지만, 격랑이 지나가면 바다는 곧 잠잠해진다. 우리도 바다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어부처럼 살았으면 한다.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이 평정심을 잃는 순간 곧바로 평정심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된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리면 된다. 그러면 화는 곧 사라지게 된다. 평온한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겨울과도 같이 고요한 수면을 떠올리면서 평정심을 기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종교적인 수행을 스스로 하는 일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종교를 신앙하든지 종교를 신앙하는 일은 마음에 신성함과 경건함을 쌓게 한다. 금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을 잘 조절할 줄 알게 되는 까닭이다. 금욕을 실천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안식이 있고, 밝은 빛만이 살기 때문이다.

문태준(文泰俊)

197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다. 1994년『문예중앙』신인문학상에 시 「처서(處暑)」 외 9편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수련거리는 뒤란』, 『맨발』, 『가재미』, 『그늘의 밭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등이 있다. 노작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애지문학상, 목월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 “묵묵히, 사랑을 담아 수용자와 함께한 세월 20여년이 됐습니다”

2019년 교정대상 수상 교정공무원  
교감 구유미, 김광남, 김행규, 정익균, 한기원, 황명호

처음 교정시설에 발 디딘 젊은 날의 두근거림이 생생한데 어느덧 20여년이 흘렀다. 2019년 교정대상에서 표창장을 받은 수상자들은 “우리들의 평균 근무 연수가 26년”이라며 쑥스럽게 웃는다. 더 훌륭한 교정공무원들이 많다면 교정대상 수상에 멋쩍어하는 모습이 소탈하다. 교정공무원으로 산다는 것, 그 사명감과 소명의식에 대해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본다.

### 평균 근무 연수 26년의 베테랑 교감들

인간은 변화 가능한 존재인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물음이다. 교정공무원이란 저 물음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직업일지도 모른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인 동시에 우리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드는 밑거름. 그만큼 고되고 힘든 길이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 온 사람들에게 교정대상은 자신의 삶을 돌아 볼 기회이자 헌신에 대한 값진 선물이다.

지난 5월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구유미, 김광남, 김행규, 정익균, 한기원, 황명호 교감도 마찬가지다. 여섯 사람이 교정공무원으로 일해 온 세월은 30년에 가깝다. 다들 혈기 왕성한 청년 시절에 첫발을 내디뎠고 때론 고되더라도 한길을 걸어왔다. 정익균 교감은 처음 제복을 입었던 20대 시절을 회상한다.

“20대에는 30년 이상 근무한 선배들을 보면서 존경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도 일한 지 30년을 앞두고 있네요. 수용자들이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일을 선택한 것이 꽤 괜찮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뿌듯함 덕분에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교정대상 수상자 여섯 명 가운데 정익균 교감과 한기원 교감은 근무 연수가 가장 많은 동기 사이다. 정익균 교감에 이어 한기원 교

감도 소감을 전했다.

“저도 교정공무원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보람된 직업임은 분명합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수용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복된 직업. 가정과 사회에서 버려진 이들을 인도하며 봉사하는 일. 이들은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이렇게 정의한다. 훌륭한 동료들이 많은데 과분한 상을 받아 멋쩍이며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

### 편견 없는 사랑과 함께 단호함도 필요해

서로 다른 곳에서 20여 년 긴 세월을 살아온 이들의 발자취

“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내가 상대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교정공무원들도 수용자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김행규



공주교도소 교감 구유미



가 오롯이 같을 리는 없다. 출소 이후 새 출발을 준비하는 수용자들을 돋고, 아픈 이들을 위해 의료 처우를 개선하며 불우한 수용자들에게 영치금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궤적은 넓고 깊다.

특히 상담 업무는 이들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한다. 상담은 교정공무원의 과업 가운데 60%를 차지한다. 구유미 교감은 상담을 통한 교감과 교정교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수용자들은 대개 본능이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진정성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포착해내지요.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니 교정교화가 이뤄지는 것 같아요.”

구유미 교감의 이야기에 김행규 교감은 깊은 공감을 표했다. “저는 종교 생활을 통한 교화 프로그램 가운데 불교 분야를 담당했어요. 스님과 함께 사형수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죠.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일반인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기에 사형수를 따뜻한 시선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김광남 교감은 교육학적 개념인 ‘라포(rapport)’를 인용하며 진정성 있는 상담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라포는 심리학 용어로 상담이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뢰와 친근감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간관계를 말한다.

“억울함이나 불만을 하소연하는 수용자를 많이 만납니다. 저는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들어주려고 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진정성을 갖고 수용자를 대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자가 불가능하고 무리한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단호하게 맷고 끊을 줄 아는 엄격함도 필요하기 마련이다. 김



청주교도소 교감 황명호



정읍교도소 교감 정의균



상주교도소 교감 한기원



춘천교도소 교감 김광남

광남 교감은 교정공무원이 ‘카멜레온’의 미덕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교정시설 안에서는 관용과 규제가 공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 깊은 관심으로 사회 재기를 도와

외국인 수용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자살률이 세 배 가까이 높다. 황명호 교감은 대전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전 세계 30~40개국에서 온 외국인 수용자를 만나 왔다. 그가 바라보는 외국인 수용자는 함께 살아갈 존재인 동시에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가족’이다. 그래서 중국인 무기수의 딸이 심부전증 판정을 받자 후원 단체를 수소문했다. 그리고 무사히 수술받을 수 있게 이끌었다.

“딸을 통해 힘을 얻는 수용자였어요.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접하고 극도로 불안해하며 잘 생활하지 못했어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내가 상대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수용자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도와줬던 것 같아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근무했던 구유미 교감도 수용자에게 관심을 갖고 취·창업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의 기관과 협력해 기업과 수용자를 매칭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수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동안 취·창업 분야의 일을 하면서 교정시설 안에서만 수용자를 잘 교육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용자가 출소 후에 사회에 잘 자리 잡으려면 국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최근 5월 ‘취업조건부가석방제도’가 적용되면서 뿌듯함을 느껴요.”

취업조건부가석방제도는 재활 의지가 강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출소 전 기업체와 채용 약정을 체결하고, 형집행률을 10% 내외 범위에서 완화해 가석방하는 것이다. 가석방과 동

시에 해당 기업체에 취업하는 새로운 사회 복귀 시스템이다. 김광남 교감은 “수용자의 사회 재기를 돋는 동시에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나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 출소자를 포용할 국가적·사회적 시스템 필요

이들은 수용자 사회 재기를 위해 교정공무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지원과 시스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교정시설 현대화와 교정공무원 추가 채용, 수용자 가족 단절 회복,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김행규 교감은 수용자의 가족 단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짚었다.

“확실하게 ‘나를 믿어 주는 한 사람’이 교정시설 바깥에 있어야 사회 재기 의지가 생기겠죠. 국가에서 가족 관계 회복 시스템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수용자 대부분은 40~50대라 사회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20~30대마저 취업이 힘든 현실에서 40~50대 출소자는 더욱 직업을 갖고 일하기 어렵다. 정의균 교감은 이를 두고 우리 사회가 출소자를 받아 줄 능력이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출소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교육 듣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출소했는데 취업 후 전과기록이 밝혀져 사직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범자 60~70%가 사회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온 경향입니다.”

교정대상 수상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정교화, 자격증 취득 등을 뒷받침할 국가적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교정공무원으로 살아온 20여 년의 세월. 그 세월 동안 수용자, 지역사회와 호흡하면서 느꼈던 교정에 대해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들이 말한 것처럼 출소자를 받아 줄 사회 시스템과 인식이 정착돼 수용자가 성공적으로 사회 재기했으면 한다.

# 링컨을 일으킨 좌우명

## 수많은 고난에도 평정을 유지하다

### 에이브러햄 링컨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고난과 역경을 겪은 뒤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됐을 때 앞선 경험은 값진 것이 된다.  
그 과정이 길고 험난하기에 좌절하거나 낙담해 멈춰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흙을 털고 일어나 다시 달리는 사람이 있다. 오늘날 '미국의 영웅'이라 불리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좌우명을 되뇌이며 '평정심'을 찾았다.

“

에이브러햄 링컨은 스물일곱 번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라는 말을 좌우명 삼아  
역경을 이겨냈다. 어떤 고난과 실패도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덕분에 그는 아무렇지 않게 흙을 털고 일어날 수 있었다

”

#### 어린 시절 피어난 성공하겠다는 결심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흑인 노예 해방과 남북전쟁 승리를 이끌었다.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명언을 남기며 만인 평등과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은 관세와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미국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 고조되던 때였다. 결국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이 발생했는데 에이브러햄 링컨은 연방 보존과 점진적인 노예 해방을 목표로 북부연합을 이끌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월 1일,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국내외에 노예 해방의 의지와 명분을 표명하며 정세를 이끄는 등 강렬한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그는 미국 북서부 변방 개척지에 거주하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학교를 겨우 1년밖에 다니지 못해 스스로 읽고 쓰는 법을 공부했다. 스무 살 이후에도 독서와 공부, 이야기에 대한 열망은 놓지 않았다. 그는 맷사공과 측량기사, 가게 점원 등으로 일하면서 온갖 고생을 겪었지만 그 자리에 멈추지 않았다. 어린 시절 배움에 대한 갈증에서 비롯한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생애는 어머니와 누나의 요절, 사랑했던 여성의 갑작스런 죽음, 결혼생활 중의 문화 갈등, 정을 쏟은 아들의 죽음 등 불행한 사건들로 가득했다.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이어져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다는 설도 있다. 그렇지만 그는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사로잡는 이야기꾼이었으며 쾌활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 슬픈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 덕분이다.

#### 스물일곱 번의 고난에도 또 일어나다

어린 시절부터 굴곡진 삶을 살았던 그는 총 스물일곱 번의 실패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외에도 사업 실패, 파산으로 인한 빚 등 줄줄이 실패를 경험했다. 정치계 입문 과정도 낙선의 연속이었다. 정치 생활을 했던 1832년부터 1865년까지 열 번의 선거에 출마했으나 1834년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 선거, 1846년 연방의회 하원의원 선거, 1860년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낙선했다. 특히 46세 때 연방의회 상원의원 선거에 실패하고 49세 때 또 상원의원에 도전했으나 낙선하는 아픔도 겪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고 일어섰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중요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아무렇지 않게 흙을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해 준 좌우명 덕분이다. 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어떤 고난과 실패도 지나가리라 믿으며 의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좌우명이 성공을 위해 필요한 평정심을 유지하게 도와준 셈이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기에, 미래를 보고 믿음을 가졌기에 성공이 따라왔다.

만약 앞에 닥친 실패와 고난에 무너졌다면 오늘날 기억되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모습은 없을 것이다. 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명언을 남긴 게티즈버그 연설 또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려움을 겪어도 특유의 유쾌함과 이야기에 대한 애정을 잊지 않았기에 명연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덕에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며,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히고 있다.

## 〈교정〉 독자에게 들어 보는 ‘평정심’

6월호 〈교정〉지의 테마주제는 ‘평정심’입니다. 평정심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동요되지 않고 항상 평안함과 고요함을 유지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실수했을 때나 슬플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지만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교정공무원 여러분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갖고 대처해 오셨나요?

이번 호 주제인 ‘평정심’과 관련해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에피소드를 들어 봤습니다.

며칠 전 거주하는 빌라에 주차해 놓았던 제 차량 앞 범퍼를 누군가가 긁고 가 버렸어요. 블랙박스도 고장난 상태라 분노가 이만저만 아니었으나 평정심을 갖고 반나절만 기다려 보았어요. 양심적인 분이라면 연락 올 거라는... 정말 연락이 왔고 피해 수리금을 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라 필요 수리비만 받고 운전 조심히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읍교도소 교사 안상현〉

누구나 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직장상사에게 꾸중을 듣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심하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나 자신이 그러한 흥을 들을 정도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교도소 교사 조용원〉

아이에게 화내기 전이야말로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어른의 잣대로 화를 내다간 심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에 화내기 전 평정심을 유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구치소 교위 이승용〉

교도관 근무를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수용자와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교정행정이나 교정 처우에 불만을 표하고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직원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모두들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서울구치소 교사 이대원〉

평정심을 잃기는 쉬워도 다시 얻기는 힘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요한 시험을 치렀는데요, 처음부터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평정심을 잃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후 아는 문제도 괜히 헛갈리고 맞게 풀었나 자꾸 의심하게 돼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차분하게 문제를 읽어 내려갔어요. 열 문제쯤 푸니까 그나마 평정심을 약간이나마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 돌아려 생각해 보니 한 문제와 열 문제의 비율이라면 평정심을 얻는 데에는 있는 것보다 열 배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정직 9급 법무연수원 임용후보자 강승열〉

- 저는 보안과 미지정 사동 근무를 맡고 있습니다.
- 수용자 상담 시 돌발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평정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하기 전에 컴퓨터 보라미시스템에 접속해 수용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성인의 말씀을 익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여주교도소 교위 어윤식〉

\* 월간 〈교정〉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호 테마 주제와 관련된 독자분들의 에피소드나 관련 생각을 적어 보내 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추억을 담다’는 마지막 페이지의 엽서와 메일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 “이 빵 안에 꿈과 사랑을 담아 드립니다!”

오븐에서 갓 구워져 나온 빵은 누구에게나 작은 행복을 선사한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직접 만든 빵을 타인에게 나눠 주는 기쁨에서 나오기도 한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만든 빵을 직원들이 지역아동들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5월의 화창한 봄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과 아이들이 함께 간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운 현장으로 가보자.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 5월 중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마당에는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다.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천천히 건물에 발을 내디딘다. 적막이 흐르는 교도소지만 ‘직업훈련교도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곳에는 작은 활기가 스며 있다. 교도소 내 한 쪐에 자리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 ‘창업베이커리’라고 뜬금이 붙은 한 교실에 들어섰다. 커다란 오븐과 반죽기, 작업대가 놓인 이곳은 제빵 훈련을 하는 곳이다. 위생복과 모자를 착용한 수용자들이 작업대 위에서 반죽한 빵을 둥글리며 작업에 열중한다. 정성스럽게 빵을 만



드는 얼굴에 미소가 깃들어 있다. 이날 자신이 만든 빵을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알기에 더욱 정성들여 빵을 만든다. 오븐에서 구워져 나온 빵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묻혀 아몬드 슬라이스를 뿐린다. ‘초코돔’이라 이름 붙인 빵이 완성됐다. 빵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직원들이 포장된 빵을 하나하나 바구니에 담는다.

### 빵으로 전하는 ‘사랑 나눔 행사’ 7년째 이어져

이평섭 교감은 “제빵직업훈련을 받는 수용자들이 직접 만든 빵을 화성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노인요양시설 등 세 곳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2012년부터 시작해 한 달에 두 번 정도 직원들이 빵을 싣고 인근 시설을 방문해 전한다”고 말했다. 수용자들은 6개월 단위로 이어지는 직업훈련으로 숙련공이 되고 제빵자격증도 따면서 착실히 훈련에 임한다. 이들은 직접 만든 빵을 이웃에게 나눈다는 기쁨이 크고, 직원들은 ‘사랑의 빵’을 전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주변의 이웃은 정성스럽게 만든 빵을 맛있게 먹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직원들은 빵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차량에 실어 부근의 지역아동센터로 출발했다. 곧 도착한 곳은 푸른자리지역아동센터.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올망졸망 앉아 있다가 빵을 한 아름 안고 들어서는 제복 입은 ‘아저씨들’을 반긴다.



### 빵과 피자, 치킨으로 즐거운 간식 시간 가져

“오늘 여기에 특별한 빵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빵을 맛있게 먹고 힘내라고 메시지도 적어 보냈네요. 우리 빵 하나씩 받고 어떤 글이 쓰여 있는지 읽어 볼까요?” 푸른자리지역아동센터 황춘희 대표가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신나서 빵을 하나씩 집어 들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이내 빵 포장지에 붙은 종이를 유심히 읽어 본다. 노란색 종이에는 아이들을 격려하는 메시지가 쓰여 있다.

‘이 빵 안에 꿈과 사랑을 담아 드립니다’, ‘너희들에게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이겨내기를 기도할게, 파이팅!’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눌러 쓴 글에는 빵을 만들고 선물하는 이들의 따듯한 마음이 스며 있다. 이날 배달된 빵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와 치킨, 콜라가 간식으로 제공됐다. 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푸른자리지역아동센터에 10인용 전기압력밥솥을 기증했다. 황춘희 대표는 새 전기압력밥솥 박스를 받아 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동안 밥솥이 작아 밥을 두 번씩 해야 해서 불편했는데 이제 한번에 밥을 할 수 있어 좋네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빵과 함께 격려의 글 읽으며 힘을 얻다

드디어 아이들이 기다리던 맛있는 간식 시간. 이날 이평섭 교감을 비롯해 직원 여덟 명이 아이들과 함께했다. 테이블에 키다란 피자와 치킨이 놓이고 뚜껑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가득 퍼진다. 오후 4시를 훌쩍 넘은 시간, 다들 배가 고팠는지 맛있게 먹는다. 누군가 “빵 먹을 사람?” 하고 묻자, 나란히 앉은 세 아이가 “저요!” 하면서 동시에 손을 들었다. “포장지 뜯어서 먹어 보세요!” 세 명의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천천히 포장지를 벗겨내 초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런데 세 명의 아이가 알고 보니 누나 둘에 남동생으로 한 형제였다. 누군가 “삼남매는 용감했다!”라고 말하자 웃음이 터졌다.

푸른자리지역아동센터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들이 방과 후에 공부하고 책도 읽으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대표님을 비롯해 교사의 지도와 보살핌 아래 이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얼굴은 밝고 해맑았다.

### 모두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빵 봉사’

이평섭 교감은 “7년째 이어지고 있는 빵 봉사는 모두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있다”면서 “수용자는 자신이 만든 빵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직원들도 빵

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민준 교사는 “그동안 빵을 전달하려 세 군데 시설에 다녀야 해서 아이들 얼굴만 잠깐 보고 갔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며 “덕분에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리고 함께 먹고 즐길 수 있어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짧지만 즐겁고 낙낙한 시간을 보낸 후, 아이들은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인사를 뒤로 하고 센터를 나서는 직원들의 얼굴에 뿌듯함이 묻어난다. 어느새 밖으로 나오니 땅거미가 지고 있다. 다음에 또 빵을 들고 올 것을 기약하며,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더없이 가벼웠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교정인 봉사 동호회는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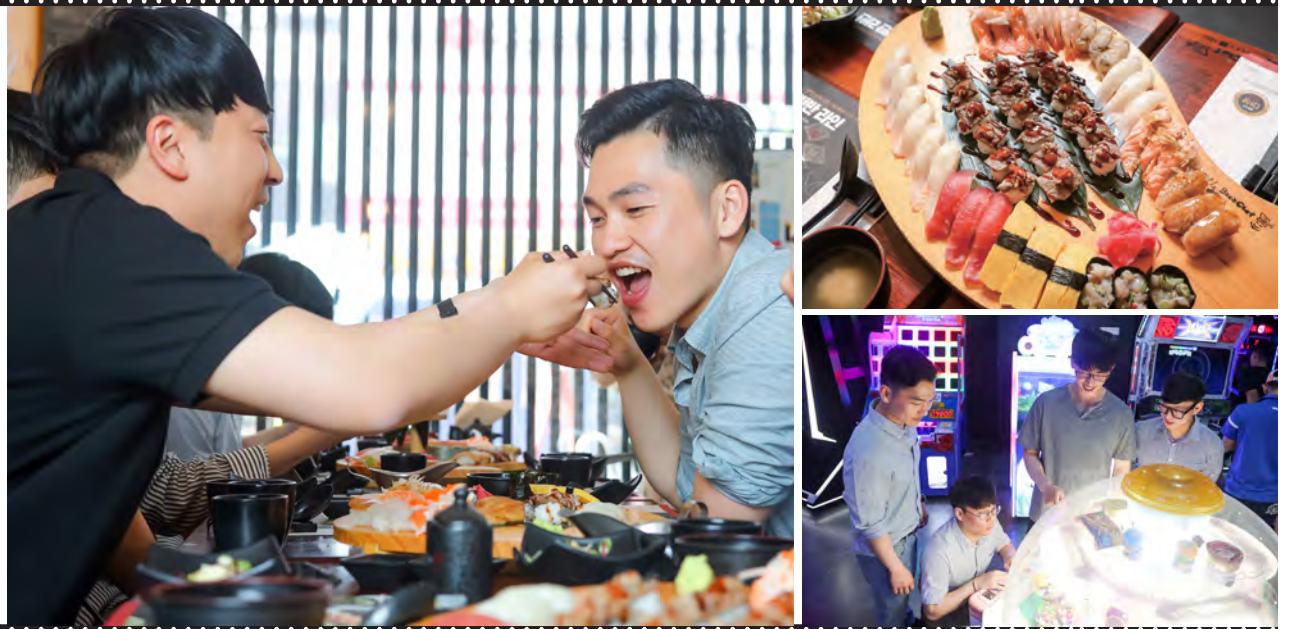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 새내기 연수생, 설레는 꿈과 포부 안고 파이팅 외치다

교정직 연수생들이 새내기 교도관으로서의 인생을 준비 중이다. 남다른 포부를 갖고 뭉친 이들은 7월에 있을 발령을 앞두고 있다. 곧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될 이들에게 추억이 될 만한 자리가 마련됐다. 함께 교육받으며 서로의 꿈을 공유한 이들이기에 오늘의 자리는 더욱 특별하다.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바쁜 이들. 꿈과 추억 선물을 가득 안는다.





### 동기들에게 '추억 선물' 배달

“법무연수원에서 가져온 〈교정〉을 읽다가 독자퀴즈에 눈길이 갔어요. QR코드가 있길래 간단히 스캔해서 가로, 세로 퍼즐 정답을 적고 연수생으로서 짧은 소감 한마디를 썼어요. 연수생이라서 기대도 하지 못했는데 며칠 뒤 ‘영화 같은 하루’ 참여자로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았죠. 너무 놀라고 들떠서 가족과 분임원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날 단체 카카오톡방이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제282기 교정직 9급 강승열 연수생의 이야기다. 그는 충청북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실무수습을 마치고 퇴근하던 어둑어둑한 저녁, 뜻밖의 전화가 마치 선물처럼 다가왔다. 그는 들뜨고 신나는 마음으로 임용후보생의 생각과 포부를 같이 실었으면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남다른 적극성을 보여 준 강승열 연수생과 4분임원들은 이 자리를 빌려 어떤 교정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말하고 싶단다.

분임원들이 법무연수원에 복귀하는 일요일 오후, 초밥집에 남자 무리가 우르르 들어온다. 강승열 연수생이 소속된 제282기 교정직 9급 4분임이었다. 이들은 총 아홉 명으로 ‘영화 같은 하루’ 역사상 최다 인원이다. 4분임은 전부 남자로 구성됐으며 마흔네 살 만형부터 스물여덟 살 막내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다. 함께 교정학 이론을 배우고 포승, 차량 점검 등의 실습을 하며 처음보다 많이 가까워졌다. 제282기 연수생 총 152명 중 여자는 단 여덟 명뿐이라 남자들끼리 몰려다니는 것도 익숙하다. 강승열 연수생은 쑥스러운 듯 인사를 건넨다.

“분임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힘든 순간도 겪더랬어요. 처음보다 더욱더 끈끈해져서 어려운 과제도 해결했죠. 좋은 추억을 안겨 준 분임원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해 주고 싶었어요.”

### 첫 발령을 앞두고 나눈 속 깊은 대화

새내기 연수생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거의 바로 초밥이 나왔다. 연어부터 광어, 장어, 새우 등 다양한 생선초밥과 스테이크초밥, 롤까지 한 상 가득한 음식에 다들 “우와” 하고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오늘 정말 ‘영화 같은 하루’네요. 남자들끼리 초밥도 먹고요.” 제일 나이 많은 만형 이상민 연수생이 초밥을 보고 감탄하자 다른 한 마디씩 대화를 주고받는다. 한 점, 한 점 초밥을 집어 먹으며 법무연수원에서 미처 하지 못한 속 이야기도 꺼냈다. 다른 같은 꿈을 갖고 모였으나 정작 왜 교정공무원으로 진로를 정했는지는 묻지 않았나 보다. 아무래도 남자들 사이에서 속 깊은 질문을 하기 부끄러웠던 탓이다. 그래서 분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많다면 더욱 귀를 기울인다. 분임장을 맡은 오영석 연수생은 대학생 때 교정학 수업을 수강한 경험을 들려줬다.

“수업을 들으면서 교정시설을 참관한 경험이 진로를 정하는데 영향을 줬어요. 대학생 때 만난 교정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일이 보람될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나 복지도 만족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순간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영석 연수생의 맞은편에 앉은 신현진 연수생도 고개를 끄덕



동했다. 최근 법무연수원 근처에 생긴 CGV 영화관. 이들이 선택한 영화는 범죄 액션 영화 〈악인전〉이다. 연수원에서 공부만 하느라 다 함께 영화를 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란다.

영화관 건물 외벽의 계단에 나란히 서 포즈를 취하고 장난치는 것도 잠깐. 다들 어디로 가게 될지 사뭇 진지한 대화를 이어 나간다. 4분임 막내 윤태호 연수생은 7월에 다가올 첫 발령이 더욱 떨린다. 새내기 교도관답게 원리원칙을 먼저 익혀서 근무에 적용하고 더 큰 꿈을 위해 공부를 놓지 않을 예정이다. 권범 연수생은 원리원칙을 지킨다는 말에 공감했다.

“교정공무원이 규정과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교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실무실습할 때 만난 선배 교정공무원이 조언해 주신 대로 수용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옮겨 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아쉽다. 오늘 하루를 꽉 채우고 싶은 마음에 영화 보기 전 오락실에서 인형 뽐 기나 추억의 게임을 하기도 한다.

“바로 며칠 전 중요한 평가를 치르느라 다들 지쳐 있었어요. 오늘 맛있는 초밥을 먹으면서 못다 한 얘기도 나누고 영화를 보니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교정공무원 생활의 첫발을 내디디는 시점에 우리의 이야기를 〈교정〉에 남길 수 있어 기쁘고 떨려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법무연수원으로 복귀할 시간. 이들은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오늘을 떠올리기로 약속했다. 머잖아 전국 각지로 흩어질 이들에게 영화 같은 미래가 펼쳐지길 바란다.

월간 〈교정〉이 여러분들에게  
‘영화 같은 하루’를 선물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소중한 분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은 분은 독자엽서 또는 우측 QR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평소 보고 싶었던 공연을 보고, 가고 싶은 장소에  
방문하는 시간을 선물하겠습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 지겨운 작심삼일 이제 그만하고 싶다면?

무슨 일이든 계획만 하면 작심삼일의 뒷에 걸리는 당신.

술 가쁘게 살아 왔으나 막상 되돌아보면 이루지 못한 계획이 많다는 허망이 가득 찰 것이다. 의지가 약해서, 동기가 부족해서 도돌이표처럼 작심삼일을 반복한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지겨운 실천 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100% 목표를 실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3



## 숫자를 활용해 목표를 구체화하라

목표를 세울 때 ‘다이어트’, ‘금연’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작심삼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령 ‘6월

15일 수영 주말반 등록, 수영 14회 중 10회 이상 가기, 7월 31일까지 3kg 감량’, ‘6월 15일부터 금연 시작, 2019년 12월 31일 금연 200일 달성, 2020년 전면 금연’ 등입니다.

이 숫자는 목표 실현의 지렛대이므로 좁은 범위일수록 좋습니다. ‘석 달 안에 10kg 감량’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계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목표량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숫자로 표현하면 실현 가능성성이 높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좁은 범위의 계획을 세워야 시기가 지났을 때 실천사항을 돌아보고 분석하며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에게 보상하라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와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장시간이 필요하고 온갖 유혹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계획과 실천

이 필요한 목표는 세부 일정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다음 달 3kg을 감량해야 하는데 냉장고 안에 냉동 피자와 맥주, 소시지가 가득하고 집안 곳곳 과자가 놓여 있다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섭취량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 중 작은 크기의 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세부 일정 세우기의 핵심은 반복적인 성취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금연달력 중 스티커가 동봉된 것도 있습니다. 금연 10일 차, 20일 차, 100일 차 등 세부 일정을 완수할 때 스티커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때 갖고 싶은 물건을 구입하는 보상 행위를 한다면 성취감이 배로 늘어납니다.

## 다른 사람과 목표를 공유하라

의지가 부족해 금세 포기할 것 같다면 다른 사람에게 목표나 계획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목표라면 실행 과정이 힘들 때 스스로 합리화하고 계

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자신의 목표를 알고 있고,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인지하고 있다면 쉽게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기보다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또 무심코 담배를 피우거나 과자를 집어 먹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막아 주거나 경각심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면 민망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공공연하게 목표를 알리고 주변의 도움을 구한다면, 모두에게 빛을 진다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 목표 실천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 결정이 끝났다면 바로 지금 움직여라

꿈을 이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실행력에서 옵니다. 계획과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을 기르려면 습관을 만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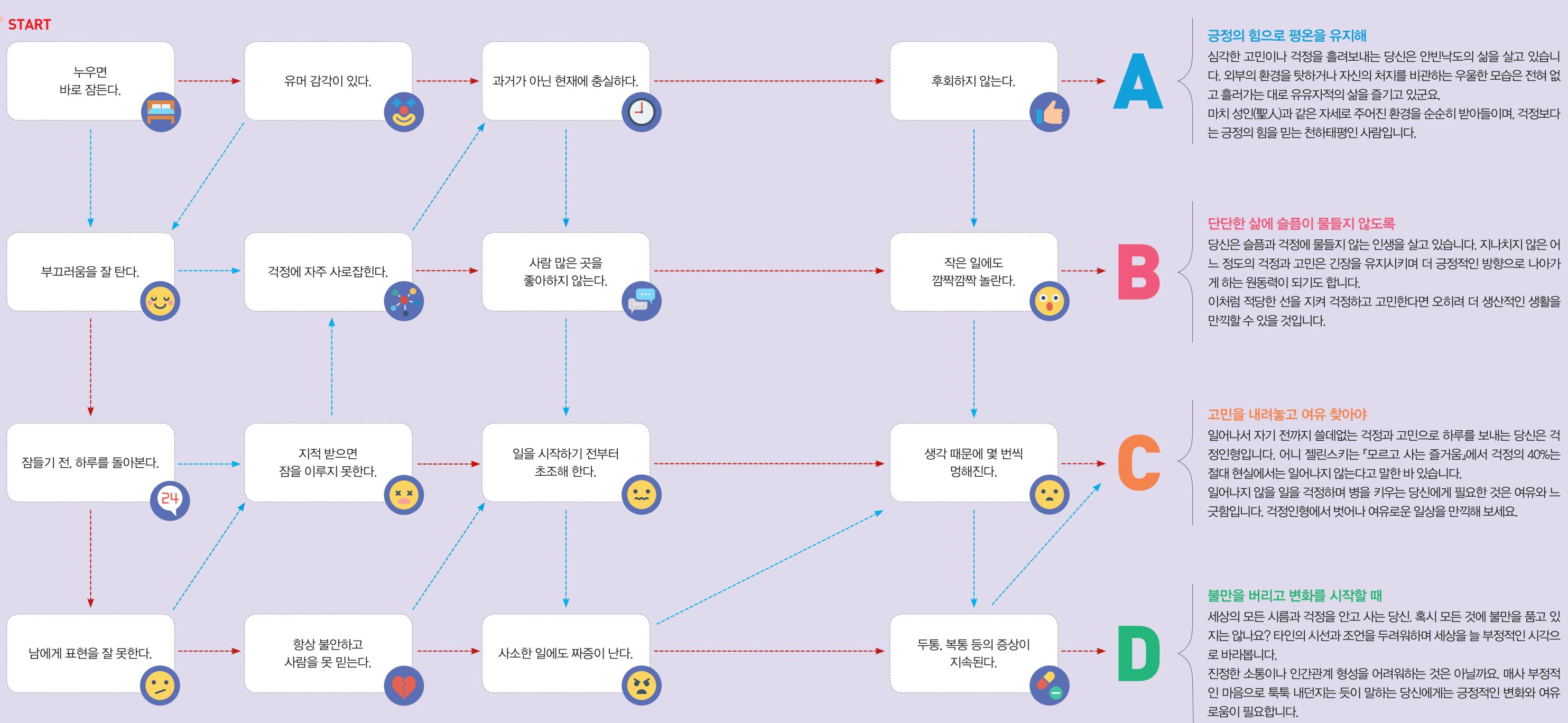
다만 습관은 의식적이거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행동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셔 흡연 욕구를 잠재우는 것, 과자를 사들고 퇴근하지 않는 것처럼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한다면 나도 모르게 다이어트와 금연을 위한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계획과 결정이 끝났다면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행동일지라도 실행력을 길러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지금 바로 움직인다면 작심삼일의 뒤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난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YES  
NO

사소한 스트레스 상황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뒤판이는 나날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슬픔과 걱정을 오랫동안 안고 살지도 모른다.  
평정심을 발휘해 쉽게 동요하지 않고 눈앞에 닥친 상황을 이겨내는 타입인지,  
걱정을 품고 계속 고뇌하는 타입인지 자가 테스트해 보자.

참고서적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정종진, 시그마북스)



## 서대문형무소의 참상을 목격하다



# 온화한 날씨의 북유럽 감성 충전소, 스웨덴 +물건 대여 시 필요한 영어 표현



## Sweden

위치 스칸디나비아반도 동남부

인구 10,053,135명

면적 447,430 km<sup>2</sup>

비행시간 최소 12시간 40분 소요

한국과의 시차 +7시간

**소개** 북유럽에 위치한 스웨덴은 여름에 온화하고 겨울에 한랭한 기후를 갖고 있다. 여름은 우리나라보다 짧고 일조시간이 길다. 여름 평균 기온이 약 16.6°C라 여름철 해외 피서지로 제격이다. 여름 하지 전후에는 한 달 동안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스웨덴을 방문하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자연 광경을 경험할 수 있다.

거리에 줄지어진 상점에는 저마다 크리스털로 만들어진 기념품과 인테리어 소품 등이 진열돼 있다. 개성 있는 색과 디자인으로 꾸민 스웨덴의 거리에는 고풍스러운 중세시대 건축물이 보존돼 방문객들에게 무궁무진한 매력을 선사한다.



## 키루나

스웨덴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스키, 아이스하키 등 겨울 스포츠를 연중 즐길 수 있는 유명 관광지다. 7월이면 민속춤·민속음악 페스티벌이 곳곳에서 열리며 산악자전거, 래프팅 등의 스포츠도 활발히 진행된다. 6,000여 개의 호수가 있어 '호수의 마을'이라고도 불리는데 가장 큰 호수인 토르네트래스크 호수에서는 일출의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 스톡홀름 공공도서관

둥근 모양의 건물에 360°로 둘 형태의 서가를 세우고 책이 빼곡하게 채워진 대형 도서관이다. 별관에는 110개 국가의 도서가 꽂혀 있다. 원형 서가 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과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어린이자료실, 휴게실 등이 따로 마련됐다. 큰 창으로 햇살이 들어와 카페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 유니바肯

1996년 설립된 후 <말괄량이 소녀 뼈째>를 창작한 스웨덴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에게 현정된 어린이박물관이다. 북유럽 유명 동화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와 집, 배경이 재현됐다. 15분 동안 다양한 동화를 듣는 빨간 이야기 기차와 뼈째의 집이 가장 큰 볼거리다.



## 스웨덴 왕궁

13세기에 처음 지어진 후 1982년까지 왕과 왕비가 실제로 거주했던 곳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각종 의복과 훈장이 보이며 왕가가 썼던 방과 손님맞이 방에도 출입 가능하다. '보물의 방'에는 왕가의 보물과 왕관이 전시됐다. 매일 점심시간에 열리는 근위병 교대식도 또 하나의 볼거리다.



### 물건 대여 시 필요한 영어 표현

Can I rent an audio guide?

오디오 가이드 대여할 수 있나요?

How much is the rental fee?

대여료는 얼마예요?

Is there a deposit?

보증금이 있나요?

May I put ( ) on my credit card?

( )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When should I return it?

언제 반납해야 하나요?

It's not working.

작동하지 않아요.

##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복세편살) &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자낳고)

신조어 '복세편살'과 '자낳고' 알아보기



### 복세편살



용어 해석

한자 네 글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로 보이지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즐겁게 살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어떤 일을 힘들게 해냈으나 쉽게 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지 말지 선택할 때 쓰인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산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 자낳고



용어 해석

신조어는 그 시대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신조어가 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기존의 단어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2030세대이고, 그들은 기존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표현방법으로 시대를 표현하길 원하다. 이번 호에 알아볼 단어 역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기성세대 역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니 그 뜻을 알아보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전문가  
용어 진단

입시,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통과의례 같은 일련의 사건이 따라온다.『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를 쓴 하완 작가는 인생 스케줄과 속도에 따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득달 같이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며 말한다. 항상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며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려고 아동바등했다. 회사원까지 오르며 인생 매뉴얼대로 살아 온 긴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은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복세편살'은 하완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하기 쉬운 일, 머리 복잡한 일은 복세편살이라는 핑계를 대며 선택지에서 과감히 삭제한다. 유시민 작가는 복세편살에 대해 "지금은 복잡한 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청년들이 단순하게 가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설명한 바 있다.

복세편살은 20대의 문화 트렌드에도 반영됐다. 어딘가 엉성해 보이는 B급 감성의 광고가 유통되거나 대충 그린 듯한 웹툰 캐릭터가 유행하는 것이다. 복세편살에는 멱고살기 힘들고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해서도 어려운 20대 세대의 현실이 반영돼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대충 살아도 문제없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담겼다.



전문가  
용어 진단

자낳고는 의미가 확장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쓰이기보다 가볍게 웃어넘기는 정도의 유머로 해석된다. 통장에 매월 입금되는 급여를 보고 퇴사 욕구를 참는 사회 초년생과 좋아하지 않는 음식으로 CF 광고를 촬영하는 방송인 등이 그 예다. 즉 돈을 벌기 위해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물론 자낳고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폭로하는 건 아니다. 자낳고가 가리키는 대상은 구조가 아니라 대상이기 때문이다.

청년들 스스로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자신을 치적할 때도 많이 쓴다. 그래서 돈이 없어 자본주의에 젖어 가는 세태, 가난함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가난하기 때문에 자낳고로 전락해 버린 청년들의 자조가 섞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 연봉, 학력, 아파트, 부동산 등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 청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매일같이 중노동을 하며 '돈'과 '권력'을 얻으려 빌버둥질을 친다. 인터넷 개인 방송 BJ들이 도를 넘는 행위를 벌이고 업기적인 소재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청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기 위해 몸부림치면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자극적인 소재를 찾는 사람들이 자낳고의 탄생 배경일지도 모른다.

# 6월 글로벌 핫클릭 뉴스

교정을 유심히 바라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사연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정>지 '글로벌 핫클릭'에서는 세계 교정 관련 이색 소식을 살펴보며, 그 소식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나라 교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스위스, 부끄러워서 죄짓고 싶지 않다는 핑크 교도소

스위스가 2013년부터 수용자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교도소를 분홍색으로 단장하고 있다. 현재 30개 교도소가 분홍 페인트로 칠해졌다. 이는 분홍색을 이용한 범죄자의 심리 치료 방법인 '쿨 다운 핑크(Coll Down Pink Project)'를 이용한 것이다. 분홍색을 마주하면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특정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스위스 현지 심리 전문가들은 분홍색으로 단장한 교도소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리학자 다니엘라 스패스 박사는 "보통 수용자를 2시간 동안 분홍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빠르면 15분 만에 분노가 가라앉는다"며 설명을 덧붙였다.

스위스에서는 교도소뿐만 아니라 경찰서도 분홍색으로 훈련하고 있다. 경찰서 대변인은 "사람들이 분홍 구치소에 들어가면 조용해지고 빨리 잠든다"며 분홍 구치소와 교도소가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탁월함을 강조했다.



## 뉴질랜드, 교도소 슬러시 기계에 7억 원… 무더위에 폭력성 완화

뉴질랜드가 짐통더위에 따른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슬러시 기계 193대를 사들였다. 구입 비용은 100만 뉴질랜드달러(한화 약 7억 7,000만 원) 이상이었다. 무더위에 수용자 수가 늘어나면 폭력 사건의 위험성도 덩달아 증가하기 때문에 직원과 수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 조치로 슬러시 기계를 구입한 것이다.

켈빈 데이비스 교정 담당 장관은 교정시설 직원들이 30°C가 넘는 환경에서 6kg이 넘는 보호 장비를 갖추고 근무하고 있다며 슬러시 기계 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슬러시 기계는 여름철 살인적인 더위를 식히는 데 젖은 천이나 개인 선 풍기, 냉수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네 빌즈 구금 담당자는 2017년 말~2018년 초여름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 사이에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며 슬러시가 다른 피서 용품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슬러시 기계는 즉각적으로 체내 온도를 낮춰 물을 마시는 것보다 3배 이상 효과적이라는 조사도 발표됐다. 슬러시 기계가 교정시설 직원의 업무환경 개선과 수용자의 긴장 및 공격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란, 美와 긴장고조 속 수용자 교환 '뜻밖 제안' 주목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4월 24일 유엔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미국 정부에 수용자 교환을 제안했다.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전면 제재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여느 때보다 첨예해진 터라 자리프 장관의 제안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자리프 장관은 6개월 전에도 미국 정부에 수용자 교환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답변을 듣기 위해 "미국에 수용된 이란인의 혐의가 허위라고 믿고 미국도 이란에 수용된 미국인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자를 교환하자"며 공개 선언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수용자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리프 장관의 발언은 우리가 그간 반복했던 말"이라며 "이란은 무고한 미국인을 당장 석방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란과 미국은 수용 과정에서 시행된 법률적 절차가 적절했는지, 수용자의 범죄 혐의는 어떠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양국이 수용자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고 무고한 수용자를 석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태국 여성교도소, '낮에는 마사지사, 밤에는 수감자'

태국의 한 여성교도소가 수용자들에게 마사지를 교육해 낮에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교도소에서는 여성수용자들이 마사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사지 가게를 직접 운영하며, 종업원을 모두 여성수용자들로 구성했다. 이들은 교도소 안에서 300시간 이상 전문 교육을 받아 마사지 전문 기술을 취득했다. 여성수용자들은 이를 새벽 호송차를 타고 마사지 가게로 향하며, 하루 8시간 일하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간다. 마사지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원은 매년 약 350명이다. 이들은 출소 후 취업이 보장되며, 수용 중에도 대졸자 초기 수준의 수입을 얻는다. 븗사바 삭랑쿤 치앙마이 여성교도소장은 "다른 교도소 여성수감자들이 타이마사지를 배우고 싶다면 여기 와서 배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교도소 안에도 마사지 가게를 열어 교도소를 관람하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태국 교도소의 마사지 교육으로 여성수용자들의 사회 재기와 적응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목공예부터 도자기까지 수형자들의 솜씨 선보여

2019 지방교정작품전시회



그리운 손녀를 생각하며 편백나무를 깎아 만든 아기용 옷걸이, 어렸을 적 어머니가 쓰시던 화장대의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어 본 서랍장. 작품마다 수형자들의 열정과 기량이 오롯이 담겼다. 가족과 재회할 그날을 기다리며 수형자들이 묵묵히 빛어낸 작품들이라 더 뭉클하다. 지난 5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오월드에서 지방교정작품전시회가 열렸다. 목공예와 도자기, 한지 공예 등 전국의 수형자들이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통해 익힌 기량을 생생하게 확인하는 자리다.



## 봄꽃 가득한 대전, 수형자들의 열정 꽃피다

“이 작품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만든 전주태극이총장입니다. 참죽과 오동나무를 이용해 만들었고, 태극 문양과 쌍희(蠶) 문자 문양이 정교해 전통적인 미감이 돋보이지요. 이쪽에 있는 항아리는 안양교도소에서 출품한 포도문백자항아리입니다. 포도가 덩굴을 뻗어나가듯 자손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한국적인 정서가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목공예 작품과 도자기, 한지공예가 조화롭게 배치돼 마치 박물관을 옮겨놓은 것만 같다. 큐레이터의 친절한 설명에 귀기울이며 관람객들은 작품 한 점 한 점을 유심히 살펴본다. 작품 아래에는 QR코드가 함께 붙어 있다. 스마트폰 시대의 관람객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느껴진다. 2019년 지방교정작품전시회가 한층 더 친근하고 스마트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선보였다.

5월 31일, 봄꽃이 한가득 만개한 대전오월드에서 2019년 지방교정작품전시회가 개최됐다. 지방교정작품전시회는 법무부에서 주최하던 교정작품전시회와 별개로 각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다. 2018년 광주지방교정청이 최초로 개최했고 올해가 두 번째다. 교정기관의 수형자들이 기술을 배우고 예술적 기량을 익히며 구슬땀을 흘린 노력과 열정의 산물을 소개하고 있다.

다시 새로운 삶의 출발을 다짐하는 수형자들의 굳은 의지, 그리고 그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본부의 노력이 오롯이 느껴지는 감동의 현장. 그래서 지방교정작품전시

회는 그 어떤 전시보다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 땀과 눈물 그리고 가족을 향한 그리움 담아

지방교정작품전시회는 매년 서울과 대전, 대구 그리고 광주 지방교정청이 번갈아 주관하면서 전국을 순회한다. 올해는 대전지방교정청이 주관해 대전오월드에서 전시회의 막을 올렸다. 이곳 대전오월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나들이 명소다. 때마침 봄꽃 축제도 함께 열려 꽃놀이 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지방교정작품전시회로 향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작품들도 여럿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체크무늬서랍장은 광주교도소 목공작업장에서 일하는 수형자 최진호 씨(가명)의 작품입니다. 이 수형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오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지방교정작품전시회에서 입상을 하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수형자가 혼신을 다해 만든 작품입니다.”

박병용 대전지방교정청장의 설명을 듣자 관람객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의 깊이를 누가 짚 수 있겠는가. 가슴하기 어려운 그 애틋함이 교정작품을 통해 오롯이 다가오니 가슴이 더욱 아프다. 설명이 끝난 뒤에도 관람객들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래서 입상은 했는지, 가족은 만났는지, 묻고 또 묻는 시민들의 눈에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묻어난다.

“네, 입상도 하고 그 열정과 기량을 인정받아서 ‘가족 만남의



집'에서 형제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딸이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해서 딸과 손녀는 다음 기회에 보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 아쉬움과 그리운 마음을 담아 이번 전시회에는 유아용 옷걸이를 만들어 출품했어요. 그리운 손녀를 생각하며 편백나무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한 작품 한 작품에 수형자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니 가닿는 눈길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안락의자는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움직임이 유연하다. 대전고등검찰청장 박성진 차장검사가 시범삼아 앉아 보는데 휘청, 몸이 뒤로 넘어가니 시민들의 입에서 “어이쿠” 소리가 터져 나온다. 광주교도소에서 만든 이 안락의자는 전시회가 시작된 지 한나절도 채 되지 않아 ‘판매완료’ 스티커가 붙었다. 안양교도소 수형자들이 만든 주기세트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온 오동나무 단층장도 벌써 새 주인을 찾았다.

#### 심사위원으로 왔던 명장도 감탄하는 솜씨

대전지방교정청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 위치한 10개 교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지원·감독하는 컨트롤타워다. 국내 유일의 외국인 전담 교도소인 천안교도소와 여성수형자 전담교정기관인 청주여자교도소, 장기 복역 수형자들을 위해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천안개방교도소 등 특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대전지방교정청은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을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수원을 부탁드린다.

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지방교정작품전시회는 대전지방교정청 산하에 준비단이 구성돼 석 달 전부터 땀 흘려 준비했다. 준비단 일원으로 참여한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 고동민 과장은 전시회의 수준을 짐작할 만한 일화를 소개했다.

“도자기를 심사하러 오셨던 명장께서 백자 항아리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자기들도 저렇게 큰 작품은 만들기가 쉽지 않다면 직접 구매하고 가셨어요. 전시장에 위풍당당하게 진열된 도자기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우리 수형자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지요.”

뿐만 아니다. 야외 전시장에는 수형자들이 교도작업장에서 생산한 편백도마와 필갑,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다양한 상품이 전시됐다. 대전교도소에서 만든 작업화는 최상의 가죽 재질로 야물게 만들어 외부에서도 구매 문의가 잦다.

이번 지방교정작품전시회에서 선보인 작품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교정본부에서 운영하는 교도작업 제품 홍보관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제품을 만날 수 있다. 국민들은 질 좋은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수형자들에게는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 교도작업제품 홍보관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직원들이 대전교도소를 말하다



#####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 과장 고동민

교정작품은 교도작업의 산물인 동시에 직업훈련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교도작업을 해서 임금을 받고 출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치자는 직업훈련의 과정인 것이지요. 모쪼록 수형자들이 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큅니다.

#####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손성일

우리 수형자들이 무료하게 수용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제품도 생산한다는 것.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방교정작품전시회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다시 직업훈련과 교도작업프로그램 운영자금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



##### 대전교도소 총무과 교감 강석일

이번 전시회에서 사전 홍보와 언론을 담당했습니다. 저보다는 직업훈련과에서 나오신 분들이 활선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이건 나도 사고 싶다. 하고 탐나는 제품이요? 편백나무도마 꼭 하나 사서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그런데 워낙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곧 매진될 것 같은데요(웃음).



#####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 교사 임재식

편백나무 천연기습기에 관심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백나무 큐브들 위에 물만 뿌려 놓으면 자연적으로 수분이 발산되는 천연기습기예요.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무척 좋아서 뿐듯합니다. 수형자가 만들었다고 편견을 갖고 있던 분들도 완성도를 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이미 판매완료입니다.



##### 시민 mini 인터뷰



“수형자들의 재능이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대전 용문동 주민 김남중 / 61세

나무로 깎아 만든 휴대폰 거치대가 튼튼해 보여서 하나 샀습니다. 집에 걸어 두려고 십자기도 구입했어요. 활동과 적동으로 된 장식이 참 정교하고 고급스럽지요? 이렇게 다재다능한 분들이 수용생활을 하신다고 하니 안타까워요. 그런데 마냥 간허 계시기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물건도 만드신다고 하니 새삼 놀랍습니다. 교정본부에서 이분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익힐 기회를 제공하고 배려해 주신다니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참 고마워요.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지… 가슴 아파요”

대전 탐방동 주민 유선경 / 48세

어머니와 대전오월드에 꽃놀이 왔다가 정말 별 생각 없이 들어와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특히 이 대회에서 수상하면 가족을 볼 수 있다는 일념으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을까. 또 얼마나 많이 뉘우쳤을까 상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어서 복귀하시길 기도할게요. 우리 사회도 이분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어요.

#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 교정공무원·교정위원 18명 수상



###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성황리에 개최

5월 2일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 격려해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행사다. 1938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가 공동으로 제정한 이후 매년 공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의 영광을 안은 수상자와 가족은 물론 법무부 박상기 장관, 서울신문사 고광현 사장, KBS한국방송 정필모 부사장, 이순길 심사위원장과 500여 명의 교정공무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신문사 고광현 사장은 개식사를 통해 “시상식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전국 1만 6,000여 명의 교정공무원과 4,700여 명의 교정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KBS한국방송 정필모 부사장은 “사회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된 이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수용자와 세상을 연결해 주는 소중한 다리가 돼 주신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 대상 부문 첫 교정위원 수상자 탄생

이번 교정대상 수상자 선정은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 이순길 심사위원장은 “법무부에서 추천한 2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정도,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등 다양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했다”면서 “추천된 후보자 모두가 훌륭한 공적을 두루 갖춘 분들이라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엄격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들의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선정된 ‘교정대상’의 영예는 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에게 돌아갔다. 박윤규 교정위원은 2004년 3월부터 창원교도소 치과진료의사로 활동하면서 수용자 진료수익금 전액을 불우수용자 지원과 치과진료 장비 기증 등으로 환원해 수용자 교정교화와 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교정대상이 제정된 이후 대상 부문에서 탄생한 첫 교정위원 수상자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를 터. 박윤규 교정위원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제 작은 봉사로 인해 수용자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또 있을까요? 앞으로도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담장 안’ 수용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담장 밖’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 일. 그 어려운 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이들이 있다.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기 위해 열린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함께했다.

### 수용자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공무원 수상자 6인

교정공무원 시상에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수용자와 호흡하며 교정교화에 힘써 온 6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상의 영예와 함께 1계급 특진의 영광을 누렸다. 구유미 교감은 27년 8개월의 근무기간 중 19여 년을 보안과에서 근무하며 문제수용자의 자해방지 등 교정사고 예방에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상을 수상했다. 구유미 교감이 근무했던 청주여자교도소는 전국 유일의 여자교도소. 개청 30년 동안 교정대상을 수상하고 특별 승진을 한 여성교정공무원은 구유미 교감이 처음이기에 상이 주는 무게는 한층 묵직하다.

“첫 번째 사례인 만큼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의 수상이 귀감이 돼 앞으로 더 많은 여성교정공무원 수상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 발 앞서 그 길을 걸어간 선배로서 올바른 이정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김광남·한기원·황명호·정의균·김행구 교감이 각각 성실상과 창의상, 수법상, 교화상, 장려상을 받았다. 이들은 지역 의료원과 수용자 치과 진료 협약을 체결해 수용자 의료 처우를 향상하거나 작업기피 수용자들을 상담해 작업장에 취업시키고, 불우수용자들에게 영치금 및 단주를 지급하는 등 따뜻한 인간애로 수용자를 교정교화했다.

### 봉사와 헌신으로 더 나은 교정 만들어 나갈 것

이어진 교정참여인사의 시상식에서는 그동안 교정을 위해 봉사한 11인이 수상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애상에는 엄정순·김택근, 자비상에는 최순심·조성부, 자애상에는 박상균·이승정 교정위원이 선정됐다. 공로상은 박준희·박배영, 봉사상은 신형수·고병수 교정위원이 차지했다. 이어 국군교도소 김종악 원사는 교정발전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들 또한 독서나 종교 활동을 통해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거나 출소자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불우수용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 재기를 위해 노력해 왔다. 무의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노인복지시설·장애인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더불어 사는 교정행정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줬다.

박애상을 받은 김택근 교정위원은 “가장 기쁜 순간은 수용자가 수용생활을 잘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날”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반가운 이별’을 앞으로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출소자들이 재범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성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2019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 참석

### 교정행정, '새로운 변화와 도전' 논의

5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2019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법무부 박상기 장관, 최강주 교정본부장과 각 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 등 교정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 를 빛냈다.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법무부 업무계획 공유와 교정행정 현안과제 토론을 통한 교정행정 방향 및 추진방안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전국 교정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교정행정 혁신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훈시를 통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인간 존중의 수용 처우와 내실 있는 정책 운용을 통해 교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수용자에게는 새 삶의 희망을 주는 교정 행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과 미래 지향적·국민 친화적 교정행정,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 등을 언급하며 공직사회 의 변화와 혁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박상기 장관은 "이번 회의가 교정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자리에 모인 교정 관계자 한 명 한 명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특별한 오찬을 가졌다.



전국의 교정기관장과 교정 관계자들은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행정 현안 해결을 위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은 교정에 대한 전문성으로 수형자를 교정교화하며, 수형자의 사회 재기를 돋пуска는 재범 억제, 안전 사회 조성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 온 이들이 2019년 교정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교정행정 현안의 구체적 방안 제시

오후에는 최강주 교정본부장의 주재로 2019년 교정본부 역점 추진정책 공유와 주제 발표 및 토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서울·대구·대전·광주 각 지방교정청 소속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됐던 토의 내용을 서로 공유했다. 먼저 서울지방교정청이 과밀 수용 문제를 언급하며 '수용생활 안정을 위한 수용자 정역 집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대구지방교정청은 '수용 처우 향상을 위한 의료 처우 시스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의료 중점 교정시설 마련을 예로 들었다. 대전지방교정청은 교정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보직 기피 현상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지방교정청은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전국 교정기관장의 소통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본부·소속기관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조직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범죄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수용자 미

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 '정신질환 수용자 출소 후 사회적 연계체계 확립 방안' 등 당면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시행, 수용자의 재범 억제력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전국의 교정기관장과 교정공무원은 교정행정의 변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소통과 단합을 통해 교정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혁신적인 교정행정을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다.



# 아들아! 조바심은 잊고 현재의 행복을 찾아라

아들아!

솔로몬의 반지에 새겨졌다고 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글귀가 생각나는구나.

우리 세대는 전쟁의 폐허 이후에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단다. 이 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지. 나 역시도 조그마한 섬 울릉도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다.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운이 좋게도 교정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잘한 것은 너의 엄마를 만난 것이 아닐까 싶다. 가정을 이루어 지금껏 살아왔으니 말이다. 나의 직업은 교정공무원이지만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인자라 어려움이 많았다. 지나온 숱한 세월 속의 힘든 나날들로 인해 삶을 이루지 못할 날도 많았고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만 두고 싶을 때도, 또 갈등했던 날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지탱해 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구절로 위로를 삼았단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버텨 온 지난날들을 반추해 본다. 어떤 선택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현재의 나를 되돌아보며 자녀들이 대학 졸업 후 각자의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화목한 우리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때 그때의 선택이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었음을 느낀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과 그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의 울타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나를 지탱해 주는 따뜻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아빠는 말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성장해 준 아들이 참으로 고맙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하기가 정말 쉽지 않는 요즘, 은행에 취직해서 온 가족을 기쁘게 해 주어 퇴직을 앞둔 나로서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모른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어렵게 입사한 은행의 업무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찬한 아픔을 느낀다. 앞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나 사회구조적으로 보나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한번도 “살기 좋은 세상이다. 사는 것이 정말 신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역사는, 경제는, 사회는, 언제나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해 왔고 밝은 미래보다 어두운 미래를 예고해 왔다. 지금도 역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볼 때 이 땅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되풀이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아들아!

이제 아빠의 인생을 30년을 기준으로 세 개의 막으로 나눈다면 그중 2막을 끝내고 마지막 한 개의 남은 3막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 게지. 지난날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다.

김형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표현은 쓰지 못하지만 60년을 살아보니 2가지가 후회되더구나. 그 한 가지는 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 대신 좀 더 노력해 보았더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수필, 소설, 시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이 독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측 메일 주소를 통해 원고를 보내 주세요. 월간 <교정>에 작품이 실리는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좀 더 잘 해 줄 걸 하는 아쉬움이다. 아직 마지막 3막이 진행 중이니 두 가지 다 실천을 해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후회가 없는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싶구나.

아들아! 성공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실수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마라.

지나고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단다. 그것은 인생의 긴 레이스에서 일어난 작은 실수에 불과하단다. 결국은 직장에 다니거나 종교를 믿는 것도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에 귀결된다.

그 두 가지가 안 되면 성공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현재가 힘들다고 해도 주어진 여건을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싶구나. 여행도 하고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요즘 그래도 속이 무딘 아빠와 대화를 많이 하는 아들이 고맙구나.

엄마와 아빠는 네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현재에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살아보니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다.

요즘 힘들어 하는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 아빠가 편지를 쓴다. 이제 30년 넘게 다닌 이 직장을 떠나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인생 후반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것이다.

아들아, 우리 같이 파이팅하자!



사랑하는 아빠가

# 당당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저는 13세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28세의 여자입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민국을 떠나 낯선 나라로 엄마를 찾아간 지 15년. 15년을 미국에서 살아온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낯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미국에서의 추억이 많고 한국에서 친아버지와의 추억보다 미국에서 새아버지와 보낸 추억이 더 많습니다.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 주신 새아버지께 고개를 들 면 목이 없고 저에게 주신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저의 사랑스런 이복동생들이 많이 보고 싶고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놓친 것 같아 너무나 슬픕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은 마치 저의 친자식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미국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 이렇게 발이 묶여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미국에서 가족들과 보냈던 시간이 소중했는지는 이곳에 수용이 되어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 제가 힘들 때 가족만이 제 옆에 있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고, 그들만이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네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도와주는 것은 저의 주변인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많은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가족들에게는 고통이고 저에 대한 실망이었다는 걸. 부족한 저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아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죄송할 마음뿐입니다.

지금 제가 그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여기서도 공부하고 발전하여 사회에 나가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시간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배우고 싶은 것 또는 제가 하고 싶은 것에는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저의 엄마, 그리고 새아버지. 부족한 저를 키워 주시고 처음에는 다른 문화로 서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터무니없이 더 부족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의 어머니보다 저의 학업에 힘써 주시고 어머니와 좋지 않은 관계에서는 항상 저의 편이 되어서 얘기를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찾아 주시던 아버지. 그동안 Dad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셨지만 무뚝뚝하고 못난 딸은 그 말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사람들이 그를 누구냐 물으면 아버지라고 답하였고, 어느 날 그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라고 소개하였고 저에게 아버지라고 불러 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을 때 그렇게 불러 드리지 못한 미안함을 항상 제 가슴 한편에 담아 두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속 아버지는 당신 한 분이고 동생들과 차별 없이 키워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 못 드린 게 많이 후회됩니다.

당신의 기대에 못 미친 딸은 당신에게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비록 당신이

'교정 희망의 백일장 Ⅱ'는 수용자들의 수필로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자책의 글로, 또 때로는 출소 후 희망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글로 채워집니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길로 들어선 수용자들이 참회하고 교화되어  
출소 후 멋진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혐오하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지었지만 저를 키운 사람으로서, 저를 오랜 기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범죄에 오인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항소심 준비를 해서 부모님께 당당한 딸이 되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저를 키워 주신 만큼 어린 동생들 그리고 아버지께 많은 것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 영주권을 다시 회복하여 미국의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와 같이하고 싶습니다. 이제야 저는 모든 걸 깨닫고 제가 실수한 일들에 대해 깊이 반성 중입니다.

제가 한 이런 실수로 소중한 가족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당당해져야 하기에 저의 옛일은 바로잡을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께 꼭 저를 다시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딸이 부모님께서 혐오하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요.



#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교정복지실천 개입에 관한 연구(下)\* – 17년 동안 교정복지실천 케이스를 중심으로 –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 2. 분석결과

본 연구는 A씨와 약 4년에 걸쳐 교환한 편지 40여 통과 인터뷰 녹취록, 교정기관의 기록 등 기타 다른 문서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18년 말까지 약 17년 동안의 A씨의 삶을 가능한 최대한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료들을 시간의 흐름대로 개입한 내용과 A씨의 반응들과 자료들에 나타난 사고, 감정, 행동들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1>은 A씨의 17년간에 걸친 그 생활을 분석, 단계별로 요약한 내용이다.

<그림 1> 연구 참여자(A)의 17년 동안의 생활 요약



\*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김나영 조교(충실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수고와 큰 기여에 고마움을 표함.

\* 2019년 <교정> 이번 호에 실린 글은 2019년 교정연구 제29권 제1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충실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접수일(2019. 3. 10.), 심사일(2019. 3. 25.), 수정일(2019. 3. 26.) 게재확정일(2019. 3. 28.)

### 1) STP(Sycamore Tree Project) 참여

#### (1) 과거 잘못에 대한 회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다짐

A씨의 만남은 (사)아시아청소년·교정연구원에서 실시한 STP (Sycamore Tree Project)에서 시작된 2001년 초에 그가 복역 중인 교정시설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STP는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하여 1996년 미국에서 개발되었고 범죄자가 피해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그 행위의 잘못을 받아들이기를 지향하는 프로젝트이다.

A씨는 이 프로젝트에 교정당국의 권유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7주 과정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며 과거에 본인이 저지를 잘못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였다. 그 자신이 피해자 가족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생겼고, 매일 피해자 가족을 위해 기도하였으며, 또 사망한 피해자 몇몇에게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전 앞으로 두 사람 몫을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는 제 몫이구요. 또 하나는 OO이(피해자) 몫이지요. 나 때문에 희생한 OO이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살아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2) 후련함과 자유로워짐을 느낌

STP(Sycamore Tree Project)가 끝난 후 A씨는 후련함과 자유로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자신의 과거 잘못을 숨기고 모른 척했던 것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날낱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표현하였으며 그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저의 허물진 과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얘기한 게 배임호 교수님(STP 진행자)이 처음이었어요.”

#### (3) 참여자 자신 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게 됨

또한 STP(Sycamore Tree Project)에 참여한 후 연구 참여자는 살인 사건 이후로 자신의 가족들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이 생겼다. 교도소로 면회를 온 가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에 대해 물었고, 그동안 몰랐던 가족들의 불안과 두려움, 고통을 알게 되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A씨의 여동생 직장으로 찾아와 협박하였던 것, 또 사건 직후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연구 참여자에게 보복하겠다고 찾아왔었던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다.

#### (4)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함

A씨는 STP를 통해 간접적인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전해 들었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은 연구 참여자가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렇기에 연구 참여자는 피해자 가족이 사랑하는 딸을 죽인 자신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렇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연구 참여자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다. 또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 준 것에 대하여 다시금 감사하였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직접 들으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갚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이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매일 피해자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지내요.”

“제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것을 가르쳐주세요.”

#### 2) 피해자 가족 만남

##### (1) 연구 참여자의 가족들이 피해자 가족 만남을 반대함

A씨의 이러한 생각을 알게 된 A씨 가족들은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미 7년 형을 받아 복역 중이고, 처벌(재판)도 다 끝났는데 왜 굳이 피해자 가족을 만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연구 참여자의 가족들은 피해자 가족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혹 시나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로 보복할 수도 있다는 마음에 두렵고 불안하다고 하였다.

“(A씨의 동생이 A씨에게 한 말) 이제 겨우 잊고 사는 집(피해자 가족)인데, 왜 껴진 불씨를 다시 살리는 거냐고요.”

##### (2) 피해자 가족 만남 후 진심으로 사죄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함

A씨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 사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피해자 가족 만남을 요청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 가족들을 4개월 동안 다양면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찾아내었고\*\*\*, 만나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행자의 신분, 프로그램의 목적, 예상되는 결과와 그 밖의 궁금해 하는 모든 점들을 답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범죄 후에 겪어 오고 있었던 고통스러워 비침하기까

지한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치유 가능성을 깨닫게 된 그 가족은 결국 가해자-피해자 중재 프로그램(VOMP)에 참여하기로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다. A씨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이후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였으며,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피해자) 가족 모두가 얼마나 힘든 아픔 속에서 지내오셨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뼈를 깨는 아픔의 나날이었는데 어떻게 사죄를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유감스러울 뿐이에요.”

또한 과거 사건 당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는 사죄의 의미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고, 이러한 의지를 피해자 가족에게 보여 주었다. 자신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한 달에 한 번 피해자 가족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하였다.

“저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아버님, 어머님, OO씨(피해자 언니), OO씨(피해자 동생)에게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OO이(피해자) 몇까지 믿음 안에서 제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 3) 교도소 생활

##### (1) 신앙의 성장과 성실한 생활

연구 참여자는 STP(Sycamore Tree Project)와 피해자 가족 만남 이후로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중 연구 참여자에게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교도소 내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또 복역 중인 교도소 내의 가장 큰 작업 공장에서 150명 정도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등 그 성실함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출소 후에도 이대로라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다.

##### (2) 주변 동료와의 갈등에서 대처 방식을 변화시키려 노력함

교도소 내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교도소 내 다른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과 갈등도 있었다. 실인 사건 당시 옥상에서 투신한 것 때문에 다리에 장애를 입은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다른 동료만큼 일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비하하였고, 이러한 콤플렉스를 잘못 표현하여 동료와 사소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 솔직하게 속마음을 밝히지 못하여 동료 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

\*\*\* 일단 범죄 피해자가 되면, 특히 본 연구에서처럼 실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가족은 범죄자가 다시 찾아와 무슨 행동을 하진 않을까 하는 불안 등으로 신분을 국도로 감추는 특성이 있음. 예를 들어, 우편물을 받는 주소지의 거주지명을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빌려쓰는 경우가 있음.

## ~~~~~

놓았고, 감정이나 생각을 무조건 숨기기보다는 솔직히 표현하라는 연구자의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고 또 대화하는 법도 몰라서 사람들이 좋은 감정으로 다가와도 금방 단절되고 말아요.”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 했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응합이 안 되었고 외로웠어요.”

### (3) 자신에 대한 성찰: 성격과 부모님의 양육방식

A씨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되돌아봄이었다. 연구자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며 연구 참여자는 더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중에서도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건 당시까지의 이야기를 터놓은 것은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A씨는 1993년도에 5대 5 미팅으로 (살인 당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멀지 않는 거리에 살아 금방 가까워져 사귀게 되었으며, 서로 가족들에게 인사도 한 채 연구 참여자가 입대하기 전, 제대하고 나면 결혼하자는 약속을 하였다.

“모든 것을 다 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OO이(피해자)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OO이(피해자)를 사랑했습니다. OO이(피해자)가 짜증낼 때도 아무 반응 없이 다 받아줬어요. OO이(피해자)가 좋으니까요. 윤통 OO이(피해자) 생각하며 살았어요. 가족들보다 친구들보다 더 말이에요.”

1996년 3월 A씨가 군대에 있을 당시 면회를 온 피해자가, 자신이 출석하고 있던 교회의 전도사와 결혼하게 되었다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헤어지자고 말하기 전 달, 3월에 제가 휴가 나갔을 때 제 집에 와서 제 아버님과 약수도 하고 그랬던 애였어요. 그런 애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나요?”

“좋아했던 마음보다 더 크게 미워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생각하고 마음을 줬는데 저를 버리다니요. 비참하게요.”

마침 군대에서 A씨가 도맡아 준비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헤어짐의 충격과 슬픔에 아무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A씨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든 현실이 이렇게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없었고 두려워지더군요. 살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없어지면 부대 안이나 밖이나 모든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라지려고 마

음먹고 휴가를 청원해서 나왔습니다. OO이(피해자)가 저한테 이런 걸 남겨주고 갔어요. 아주 절망하게 더는 살고 싶지 않게요. 전 그때 제가 처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는 주위의 모든 상황이 막막하게 하고 숨통을 조여 오는 것 같아서 최후의 수단을 생각한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도망치듯 휴가를 나온 연구 참여자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어느 건물 옥상에서 만났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헤어지겠다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였고, 이에 분노한 연구 참여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곧바로 옥상에서 투신하였다.

“OO이(피해자)로 인해 제 삶은 망가져 가고 죽음까지 생각하게 했는데 OO이는 ‘역시 너답다’라고 저를 비꼬아서 노리개 같이 말했던 것 이 맘에 걸리는 게 배신감을 넘어서 증오심이 생기더라고요. 왜 제 마음을 무시해요. …(중략)…너가 날 얼마나 망가트렸는지 퍼붓고 싶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배신감에 OO이(피해자)가 너무 미웠구요. 제 삶을 다 형틀어버리고 망가뜨린 OO이(피해자)가 정말 미웠구요. 그땐 제 상황과 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A씨는 살인 사건 당시를 회상하며 그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 본인의 성격이 영향을 미쳤음을 깨달았다. 소심하고 제대로 하고 싶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한 번에 폭발하는 성격이었으며, 이러한 성격 때문에 스스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문제에 잘 반응도 못하구요. 사람들과 대화도 잘 못하고 대인관계도 잘 못해요. 이번 사고 원인도 이런 제 자신이 열등감에 빠졌던 것 이 원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 OO이(피해자)에게도 벼름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야. 난 쓸모없는 사람아야. …(중략)…이런 생각으로 죽음을 택했던 저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사고도 저의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이 이 제 입장이었다면 다들 다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제가 바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구요. 분명히 제 잘못이구요. 제 책임이에요.”

연구 참여자는 본인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 성찰하며 성격 형성의 배경에는 가족 배경과 부모님의 양육 방식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매우 엄격한 아버지와, 지나치게 과잉보호를 하며 착한 아들이기를 바라는 어머니로 인해 연구 참여자는 항상 부모님 눈치를 보며 수동적인 성격으로 자랐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싫다는 내색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집 앞 길가에서 만나도 모른 척 지나간 적도 있었구요.”

“그런 어머니 품에 자라 와서 지금도 전 제 힘으로는 판단력도 모자라고 혼자는 무엇이든 잘 못해요.”

“내 주장을 못하는 건 자신감 부족이에요. 자신감도 없고 치열하게

사는 세상에 투쟁력도 없는 제 모습이 참 초라하게 느껴지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했던 것이었어요. …(중략)…말 잘 듣는 순종형에 길들여진 제가 누구를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그리고, 그동안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러한 고민들과 성찰의 내용을 A씨가 보내온 글에 고백하였고, 본 연구자의 계속되는 피드백을 통해 A씨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마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서 기뻤습니다. 이게 다 편지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죽지 않고 이렇게 교도소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려고 이렇게 제 과거가 있게 한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상과 같은 분석 내용을 근거로 A씨의 살인 사건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정리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살인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내용들



## 4) 출소 직후 사회적응 및 자조모임 참여

### (1) 신앙생활: 자조모임 참여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음

2007년 A씨는 6년 4개월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가석방 출소하였고, 가족(어머니)과 함께 살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가 출소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출석할 교회를 찾는 것이었고, ‘꿈과 비전을 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교회’를 찾아 등록하여 교회생활을 시작하였다. 또한 (사) 아시아청소년·교정연구원에서 실시한 범죄 가해자 자조모임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였고, 출소 후 사회적응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았다.

(2) 구직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학위 취득의 노력을 한 출소 후 A씨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 시작 전에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학원에 등록하여 공부하였다. 또한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 아시아청소년·교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OO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영역의 수업들을 수강하였다.

## 5) 현재

### (1) 연구자와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 교류

A씨는 출소 후부터 현재까지도,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 진행자와 진행팀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과거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와 출소 직후보다는 교류의 빈도가 많이 줄었지만, 어려울 때나 고민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연락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2) 사회복지 학사학위 취득

최근 A씨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한국사법정의센터의 소개를 통해 C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즘 남북정상회담도 하는 와중에 통일 후 북한 사람들을 한민족으로 보듬어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출소 후 새로운 시작이라는 꿈을 가졌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차별하는 것을 보며 북한 주민들도 통일 후에 (제가 당한 것처럼) 그들의 배경과 환경으로 무시당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 (3) S시의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

연구 참여자는 과거 서울의 S공업고등학교 자동차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이러한 전공을 살려 S시의 자동차 부품제조 외국계 회사에 취직하였다. 현재 회사에서 일한 지 4년이 넘었으며, 최근에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 (4) 꾸준한 신앙생활

연구 참여자는 출소 후 다니던 교회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출석하고 있다. S시로 이사를 가기 전에는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였으며, 전과자라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들과 편견이 있었음에도 신앙심으로 버텨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여자친구(피해자)를 만나서 신앙이 생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나를 다잡으며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표 1>은 A씨에게 제공된 다양한 개입활동들을 단계별로 요약하고 그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개입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A씨와의 17년 이상의 지속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었지만, 연구 결과 부분에 담지 못한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수용자들과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교정복지실천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였고, 시작 당시에는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위해 대상자들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안타깝게 생

각하여 애초부터 연구 논문을 작성하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배제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 미진하거나 분실된 자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존의 단기적이고 일회성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과 실천적 개입에 한계를 느끼고,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17년 동안 사후관리(follow-up)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지속적인 교정실천 활동들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전체 과정을 시간적인 개입의 경과에 따라 정리하고 분석 과정을 거쳐 연구 참여자의 반응과 인식-사고-행동 차원에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관련된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표 1〉 A씨에게 17년 동안 제공된 개입활동 내용과 그의 변화 내용

시기	교정복지실천 개입	참여자의 반응/변화
출소 전		
출소 전	1) STP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ycamor Tree Project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도소에 협조 요청</li> <li>- 4단계의 프로그램 내용 구성</li> <li>- 참여자(가해자, 피해자) 섭외 및 사전 면담</li> <li>- 중재자(mediator)로서 역할 담당</li> </ul> </li> </ul>
	2) 피해자 가족 직접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서신 교환, 면회를 통해 사회적 지지 제공</li> <li>• 피해자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참여자의 욕구를 받아들여 피해자 가족 접촉 필요한 정보 제공</li> <li>• 만남을 위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참여자와 피해자 가족 각각 사전 면담</li> <li>- 위기 상황 대비</li> </ul> </li> <li>• 국내 최초로 교정시설 내에서 가해자-피해자 만남 실시</li> </ul>
	3) 이후 교도소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서신 교환, 면회를 통해 사회적 지지 제공</li> <li>• 신앙 상담 및 멘토 연결</li> <li>• 진로 및 출소 후 취업에 대한 상담</li> <li>• 다른 동료와의 갈등에 대해 조언, 상담</li> </ul>
출소 후	4) 출소 직후 사회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 연락, 메시지 연락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 제공</li> <li>• 멘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앙 상담</li> <li>• 가해자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지지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도움</li> <li>• 대학에서 교정 관련 수업을 청강하도록 권유</li> <li>•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상담</li> <li>•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공부하도록 지원</li> </ul>
	5)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 연락, 메시지 연락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 제공</li> <li>• 과거 범죄 사건을 극복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대학에서 특강 할 수 있는 기회 제공</li> <li>• 사회복지 학사학위 취득에 도움 제공</li> <li>• 직업 선택과 비전에 대한 독려</li> <li>• 신앙 멘토를 통해 지속적인 신앙상담 제공</li> </ul>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17년 동안에 걸친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의 인식, 사고와 행동의 변화 그리고 현재 안정된 생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때, 그동안의 교정복지실천 및 개입에 대한 효과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 연구에서 언급된 개입 활동들과 서비스가 전적으로 그 효과성에 기여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쉽게도 교정복지 분야에서는 수용기간과 출소 후 장기간 동안 사후관리가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가 겪어온 각 시기(단계)별로 그가 원하는 욕구와 드러난 문제들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서비스들과 도움을 제공한 것이 연구 참여자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결국 범죄자를 향한 교정활동이 교정시설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의 인식-사고-행동의 변화

가 삶 속에서 구현되려면, 출소 후에도 사후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당한 경우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이 보호와 돌봄(caring)을 제공할 수 있는,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가 출소 후 가정과 사회에 재정착하지 못하고 재범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수용시설 내에서 실제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 대화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역사적인 것이며, 회복적 사법정의의 관점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면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고통과 생사를 넘나드는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범죄자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약속하였다. 이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져 연구 참여자의 현재 안정된 삶을 얻어진 것으로 볼 때, 수용자의 진정한 교정을 위해서는 그가 행한 잘못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악영향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미쳤는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그의 인식-사고-행동 변화에 있어서 첫걸음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된 피해자-가해자 만남의 장(forum)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러한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한 프로그램 전문가가 양성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개될 수 있는 교정시설 내 그리고 사회 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선행요건이다.셋째, 교정복지실천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교정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단계에 따라 파악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 이해하고자 생태체계적 관점(Ecosystemic Perspectives)에서의 접근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개인에게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피해자의 가족, 지역사회, 교정시설과 관련된 기관들과의 적합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고, 나아가서는 같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수준에서의 활용지원으로 간주되었다. 다차원적인 관점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

자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 출소 후 취업준비와 구직하는 데 있어서, 또한 그의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수용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생활과 사회 내에서의 생활이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범죄자 혹은 출소자가 처하게 되는 장소와 시기, 그리고 그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는 교정실천 개입 활동을 제안한다.

교정복지 활동에 개입하는 전문가의 역할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 활용된 케이스의 경우에는 교정사회복지사의 여러 역할 중 안내자(guide)의 역할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중개자(broker) 혹은 옹호자(advocate)의 역할로 연구 참여자의 학위 취득을 돕거나 관련 자원을 개발 및 사용하고, 주위 자원들과 연결되도록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리 교정현장에 필요한 것은 중재자(mediator)의 역할이다. 이는 교정복지실천 현장에서 활용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선진교정복지실천을 위해서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적 중재자가 진행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과 대화(dialogue)는 교정실천의 새로운 방향이기도 하다. 이러한 만남과 대화가 모든 범죄 사례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선별 과정(screening process)을 거쳐,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받은 중재자가 진행한다면(facilitating) 생산적이고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가과정의 설립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이미 행해진 기존의 유사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한 명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례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의 한계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례를 연구논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였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17년 동안 자연스럽게 기록 보존된 한정된 자료에 대부분 의지해서 분석하게 된 점이 본 연구결과에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범죄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피해자-가해자의 만남과 대화의 장(forum)을 제공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과 같은 교정복지실천을 여러 범죄 케이스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후에는 상당기간 동안 사후서비스(follow-up services)가 제공되고, 이를에 대한 질적 연구와 더불어 양적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교정실천 방법이 교정대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교정복지실천 방법들이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어 살인 사건 외에 다른 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그들의 가족이 스스로를 되찾고, 서로 간에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범죄자의 인식-사고-행동이 변화되는 진정한 교정이 실현되어 가정에서,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해 가게 되는 보다 밝은 우리 사회를 학수고대한다.

##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미디어에 비친 교정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 도대체 형집행정지가 뭐길래 그래요?



**형사소송법 제471조** :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된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인데요, 드라마도 이 사유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 닥터 <프리즈너> 그것을 알려 주마



서울 명문 대학병원 응급실의 에이스였던 나이제(주인공)가 교정시설 의료과장으로 지원합니다. 재벌·정치인 등과 인맥을 쌓기 위해서죠! VIP 수용자에게 '형집행정지'를 제안하고 형집행정지를 아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나이제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 없는 병 만들면 형집행정지다? 아니다?



수용자의 건강을 일부러 해하거나 허위질환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일! 형법 제233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자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양심과 윤리의식을 지키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 형집행정지 받으면 어디든 간다? 못 간다?



판코니 커플이 놀이동산에 놀러 가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형집행정지는 주거를 제한하고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형집행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하답니다.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이 놀이동산에 갈 정도면…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수감되겠죠?

### 비싼 의약품 빼돌릴 수 있다? 없다?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약품 담당자는 매서운 눈으로 의약품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어요. 당연히 의약품 보관장소에는 담당자만 출입할 수 있구요. 드라마처럼 교정시설의 의약품이 불법 반출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꼭 귀신 나올 것만 같은 드라마 속 풍경 너무 낙후된 건 아닌가요?



### 없는 게 없는 특별 수용동, 있다? 없다?



교정시설은 미결 수용동, 기결 수용동, 의료 수용동으로 구분돼 있어요. VIP 수용자를 위한 특별 수용동이나 특별 접견실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돈 있고 빼 있다고 수용자의 편의를 봐주진 않아요. 법률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그건 반칙!



## 본부 소식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정본부장, 교정기관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5월 9일과 10일 장흥교도소와 순천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주요 정책 과제의 이행 실태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정책현장 방문 직후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여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 부처님오신 날 기념 가석방 실시

5월 10일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모범수용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한 가석방이 시행됐다.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법,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 위험성이 적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용자를 신중히 검토해 이루어졌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가석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18명의 모범수용자가 조기 사회 복귀의 기회를 받게 됐다.



### 스마트접견 시스템 개선 및 시범운영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인터넷화 상접견용 PC에 민원인의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5월 20일부터 서울구치소 등 16개 교정기관에서 시작된 시범운영은 6월 2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향후 보안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 설명회 개최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 설명회가 5월 22일 법무연수원에서 개최됐다.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은 신입 수용자의 미성년자녀 보호지원제도 도입, 수용자 금지물품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전국 교정기관의 담당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조문별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 및 개정에 따른 변화 등에 대해 들었다.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월 31일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주요 내용은 수용자의 1일 작업시간을 최대 8시간 범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 1일 4시간의 범위에서 작업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인천구치소 등 9개 교정기관에서 교정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심리상담사 및 피지컬 케어 전문가가 교정기관을 방문해 심리상담, 스트레스 검진, 체형 교정, 통증 완화 마사지 등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높은 만족도를 표했으며 심신케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시행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5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정영숙 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관련 법과 제도 등에 대해 안내 했다. 강사는 주변 장애인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감도를 높였다.

서울구치소 | 교사 변무관  
직원 가족 침관 행사 개최

서울구치소는 5월 3일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해 직장 내 어린이집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직원들은 서울구치소에서 미리 준비한 어린이날 선물을 직접 어린이들에게 나눠 주며 축하했다. 또 어린이집 직원들과 여러 고충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교도소 | 교위 유승현  
호신무술 전문지도자 과정 수료식 개최

안양교도소는 5월 13일 연무관에서 호신무술 전문 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호신무술 전문지도자 과정은 지난 3월 6일 안양교도소와 세계호신 권법연맹의 업무협약 이후 진행됐다. 이날 수료한 12명의 교도관 호신무술 지도자는 앞으로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호신무술을 지도할 예정이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참관 행사 개최

수원구치소는 5월 8일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석·박사과정 및 학부생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참관 행사는 교도관 직업 소개를 비롯하여 분류심사 과정, 수용자 입출소 과정, 거실 생활 등 수용생활 체험 등이 진행됐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단정한 복장 홍보 배너 설치

서울동부구치소는 5월 13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단정한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 배너를 설치했다.

너를 보안점문 및 탈의장 앞에 설치했다. 홍보 배너에는 “사람은 그가 입은 제복 그대로의 인간이 된다”라는 나폴레옹 명언과 평소 모범적인 부부 교도관의 모습이 실렸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전 직원 건강검진 실시

인천구치소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인천 사랑병원과 협조해 실시한 이번 건강검진은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검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복종우  
안보 통일 교육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5월 22일 을지태극연습을 앞두고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안보 통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 행정의 중추인 공직자들의 안보의식 제고 및 국기관 정립을 위해 통일교육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분단폭력을 너머 평화공동체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오흥균 소장은 “투철한 안보관 확립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어버이날 맞이 직원 가족 침관 행사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어버이날을 맞아 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어버이날 행사 및 시설 침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 드리기’를 실시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직원 족구대회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5월 23일 체육시설에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원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직원 족구대회는 앞선 4월 30일 각 부서별로 팀을 구성해 예선전을 치른 바 있다. 이날 결승전과 3·4위전을 비롯해 일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경기가 진행됐으며 직원들을 위한 여러 음식이 마련됐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전 직원 한마음 족구대회 개최

여주교도소는 5월 15일 테니스장에서 전 직원 한마음 족구대회 결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 상호간 유대 강화와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4월 초부터 16개 팀이 출전해 예선경기를 치렀으며 결승전에서 보안부가 보안2부를 물리치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결승 행사는 여주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10명이 참여해 부서장들과의 번외경기도 진행됐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어린이날 맞이 ‘에델마을’ 방문

서울남부교도소 ‘나누리’ 봉사동호회는 5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동복지시설 ‘에델마을’을 방문했다. 이날 나누리 회원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과일도시락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보물 찾기, 술래잡기 등 다양한 놀이를 함께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에델마을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물원 및 놀이공원 동행 등을 하며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춘천교도소 | 교사 신창훈  
강원대학교 침관 행사 개최

춘천교도소는 5월 7일 강원대학교 형사정책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침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침관 행사는 학생들에게 수용 관리 및 처우 등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학생 인솔 교수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증 행사 개최

원주교도소는 미사용 물품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해 5월 21일 아름다운 가게 원주 무실점에 도서, 의류, 생활용품 등 677점을 전달했다. 이는 원주교도소 직원들이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기증한 것이다.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된 물품의 판매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들을 돋는데 쓰일 예정이다.

강릉교도소 | 교위 최규원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 균절 결의대회 실시

강릉교도소는 5월 17일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및 청렴 실천 선서, 음주운전 균절 선서를 실시했다. 강릉교도소 전 직원은 음주로 인한 품위 유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하고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청렴연수원 임규만 전문강사를 초빙해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서주현  
춘계 체육행사 개최

영월교도소는 5월 22일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직원 체육관에서 춘계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춘계 체육행事에는 족구대회 및 경품 추첨 등이 실시됐다. 이는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직원 상호 간 친밀감과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수원구치소 | 교위 김관순  
성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5월 14일 직원을 대상으로 성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양성평등교육원 손민원 전문강사는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양성평등의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망교도소 | 9직급 배현승  
소망한마음 축제 개최

소망교도소는 5월 14일 전 직원 및 수용자가 참석 한 가운데 제15회 소망인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수용자의 인성 변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개최됐으며 1부 체육대회, 2부 문화행사 및 야외음식나눔으로 구성됐다.

##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최현철  
춘계 문화행사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5월 9일 춘계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소속 직원들은 햄버거로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격의 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영화를 함께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활기차고 행복 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에 자진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는 5월 3일 회의실에서 대구마약퇴치 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문 교육 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활동 및 치료 재활 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 미약중독 수용자에 대한 재범 방지 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수용자 미성년 자녀 돋기, 사랑의 멘토링 시행

부산구치소는 5월부터 교정협의회와 함께 수용자 미성년 자녀 중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수용자 미성년 자녀 중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학습 지도,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다목적구장 개장식 및 체육대회 개최

창원교도소는 5월 15일 다목적구장 개장식 및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종무과와 사회복귀과의 족구 예선경기를 진행해 직원들의 회합을 도모했다. 특히 개막식에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에 기여했다.

## 부산교도소 | 교사 문수환

## 교정직 2차 합격자 참관 행사 개최

부산교도소는 5월 22일 교정직 2차 합격자 8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정행정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성맹환 소장은 “앞으로도 교정시설에 대한 참관을 더욱 확대해 교정기관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 안강중학교 대상 ‘보라미 준법교실’ 운영

포항교도소는 5월 16일 안강중학교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법질서 준수 교육과 교정행정 홍보 및 교도관 직업 소개 등이 이루어졌으며, 수용기실과 심리치료센터 등의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창현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관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열린 교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 고령자·장애인 수용자 대상 특별교화행사 개최

진주교도소는 5월 13일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 어버이날을 맞이한 해당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로 고령수용자 카네이션 달아 주기, 무용, 국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청원 갈릴리 선교회에서 준비한 친환경 쌀과 과일 등의 다과를 나누며 수용생활 중 느끼는 고민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구치소 | 교사 곽명재 사회 친화적 환경 위한 벽화 그리기 실시

대구구치소는 5월 11일 아트스토리,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와 연계해 사회 친화적인 교정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구치소 민원실 진입로 외벽에 벽화 그리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트스토리 회원 및 지역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자원봉사단, 대구구치소 직원 및 교정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15일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원 교육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사회복지인권연구소 서영협 부소장이 외부강사로 초청돼 강의를 진행했다.



###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수용자 가족 참관 행사 개최

안동교도소는 5월 17일 가족 만남의 날 참가 가족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교정시설 참관은 14명의 수용자 가족들이 취사장 및 수용동 등 수용자들이 직접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견학하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심상현 보라미 봉사단 목욕 봉사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5월 16일 직원 6명, 수용자 4명으로 구성된 보라미 봉사단을 통해 청송군 소재의 사회복지시설 '이름다운 실버타운'을 방문했다. 이날 노인성 질환으로 가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목욕 봉사를 실시했다.

###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김기년 직원 가족 초청 참관 행사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5월 20일 직원 가족 50여 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팔순 부모님부터 2살 젖먹이 아이까지 참여해 가족의 직장인 교도소를 살펴보고, 직원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민동백 춘계 체육행사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5월 9일 경북북부교정시설 체육관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춘계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탁구경기, 팀킬경기를 준비해 1~3위 팀에게 경품을 지급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장 내 행사에 대한 이미지가 재고됐으며, 체육행사로 인한 부상자가 단 1명도 없는 결과를 얻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 울산구치소 | 교도 박준구 대구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울산구치소는 5월 8일 현장 점검을 목적으로 소를 방문한 정유철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맞이하고 직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울산구치소는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처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정유철 청장은 직원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신 청렴결의대회 개최

경주교도소는 5월 7일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전 직원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청렴한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결의문 선서와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소장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 통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부산시민로스쿨 참관 행사 개최

통영구치소는 5월 19일 부산시민로스쿨 제5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참관 행사는 부산시민로스쿨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교정시설 환경을 이해하고 범규범 준수의 기초적인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했다.



###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협 밀성고등학교 참관 행사 개최

밀양구치소는 밀성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진로체험 및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참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홍보동영상 시청, 보호장비 체험, 구내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우 직원 소통 간담회 개최

상주교도소는 5월 7일 송지용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 초청 직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지용 지청장은 최근 상주교도소가 수용자 교정교화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칭찬했다. 이어 '검찰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소통 간담회에서 검찰과 교정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세우는데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정구완 자비구매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5월 23일~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및 전국 자비구매업무 담당자 등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구매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자비구매물품 품목 선정 및 입찰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직원회 근로자 인력의 효율적 운용 방향을 검토하는 등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춘계 체육행사 개최

대전교도소는 5월 2일~16일 부서별 춘계 체육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심신 단련과 함께 밝고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각 과에서는 족구, 산행, 축구 등 디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총무과 산행에 참석한 권민석 소장은 "평소 교도소 안에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다가 산행을 하면서 직원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하니 즐거웠다"고 밝혔다.

### 청주교도소 | 교위 박용규 청천재활원' 방문 봉사 실시

청주교도소는 5월 11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청천재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 활동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화심길 봉사단' 회원 13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청천재활원에서 시설 주변 집초 제거 및 정리정돈 작업을 진행했고, 준비한 괴일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 천안교도소 | 교도 김우경 직원 화합 족구대회 개최

천안교도소 직원들은 5월 2일 직원 회합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예선전부터 시작해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된 족구대회에 모든 직원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이번 족구대회는 워라밸 시대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됐다.

다. 직원들은 서로 화합해 활기차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직원 가족 참관 행사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5월 17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참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소통의장을 마련하고 교정공무원의 역할 및 수용 관리의 전문성 등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흥순 철 소장은 앞으로도 직원 가족 참관 행사를 개최해 교정공무원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장관기 탁구대회 개최

공주교도소는 5월 4일 제11회를 맞은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 전국의 42개 교정기관의 361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발휘했다. 김용분 소장은 "전국 교정 가족의 단합된 모습과 탁구 사랑의 열정 속에 오늘 경기가 선수 여러분 모두의 생애에 길이 기억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웃음치료 직장 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5월 17일 한국웃음행복아카데미 황미숙 원장을 외부강사로 초빙해 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웃음치료 직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웃음치료 직장 교육은 수용동 근무 등으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웃음치료로 해소함으로써 직원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실시됐다. 직원들은 직장 교육을 통해 한바탕 웃음으로써 긴장감과 피로를 풀었다.



### 홍성교도소 | 교사 김성준 장관기 예선 및 청장기 축구대회 개최

홍성교도소가 5월 11일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제9회 법무부장관기 예선 및 제21회 대전지방교정청장

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전청 7개 기관이 참여해 A, B조로 나누어 진행됐다. 그 결과 홍성교도소가 우승을 차지해 대회 5연패를 달성했다. 김춘오 소장은 대회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등 참관 행사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2일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등 104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개방교도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용실, 공장동 작업 현장, 가족 만남의 집 수용자 식당 등의 시설을 둘러봤다. 신임검사들은 깨끗한 수용환경과 선진화된 수용자 체우프로그램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사 유제영 어버이날 효 잔치 자원봉사 참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인근 지역에서 열린 제47회 어버이날 기념 어르신 효 잔치에 자원봉사했다. 직원들은 어르신 효 잔치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직원들은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좌석 안내 및 식사 전달 등을 담당했다. 더불어 전 직원이 함께 성금을 모아 전달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 깊이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유관기관 합동 방호훈련 및 방호진단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5월 2일 국가중요시설 '다'급 변화과 관련해 군부대, 경찰의 협조로 전시적 침투를 가상한 긴급 출동 및 체포 훈련을 실시했다. 5월 14일에는 자체 방호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정종구 중령 등 3명이 방문해 방호 현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윤구 장관기 예선 및 청장기 야구대회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5월 6일 광주 첨단종합야구장에서 제9회 법무부장관기 예선 및 광주지방교정청장기 야구대회를 개최했다. 광주교도소를 포함한 총 8개 기관이 참가했다. 이날 전년도 우승팀인 광주교도소가 우승을 차지해 본선에 진출하게 됐고, 준우승을 한 정읍교도소는 대전지방교정청 지역예선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기관과 플레이오프를 거칠 예정이다.



### 광주교도소 | 교사 박승현 장관기 예선 및 청장기 야구대회 우승

광주교도소는 5월 6일 광주 첨단종합야구장에서 열린 제9회 법무부장관기 지역예선 및 광주지방교정청장기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교도소 야구동호회 광교세이버스의 김독 나시옹 교사는 “3년 연속 우승하게 돼 기쁘다.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얻은 에너지로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전주교도소 | 교위 정재현 장애인 수용자 대상 교회행사 실시

전주교도소는 5월 17일 강당에서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수용자 19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후원했다. 전주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장애인이 선보인 난타공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재활 의욕을 고취 시키는 등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 순천교도소 | 교위 윤선호 순천대학교 법학과 참관 행사 개최

순천교도소는 5월 16일 순천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순천대학교 법학과 학생 43명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도관 직업 소개 및 진로 탐색을 위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후 수용자 교육실, 생활공간 등 교정시설을 직접 체험하며 교도관의 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에 대해 올바르게 홍보하고 변화하는 교정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교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 목포교도소 | 교사 김민선 동신대학교와 수용자 상담 · 심리치료 업무협약 체결

목포교도소는 5월 2일 동신대학교와 수용자 상담 · 심리치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신대학교는 수용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교정공무원 상담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고 목포교도소는 교정시설 참관,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 참여 및 실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담심리학과 재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높이고 수용자들에게 효과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해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제1회 군산교도소 초대 작가전 개최

군산교도소는 5월 3일 ‘2019년 제1회 초대 작가전’을 개최하고 군산중동성결교회 담임목사인 서종표 작가를 초대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작가가 국내외 아름다운 자연과 세상을 수십 년에 걸쳐 찰영한 사진이 전시됐다. 초대 작품은 총 26작으로 고구려도, 대둔산, 보성녹차밭, 백두산 등을 포함해 폐루 오아시스, 오스트리아, 브라질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폭포, 마추픽추 등이다.

### 제주교도소 | 교사 흥지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참관 행사 개최

제주교도소는 5월 8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멘토링 지원 단체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유예지원위원회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 교정공제회

### 회원 안내문 발송 및 운영현황 공개

교정공제회는 2018년 말 기준 개인별 퇴직급여금 안내문을 전국 각 지부 등에 발송했다. 또한 2018년도 교정공제회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공제회의 운영실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경영을 지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정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 [www.cmaor.kr](http://www.cmaor.kr))



## 국군교도소

###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국군교도소는 5월 18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용자를 위해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제15회를 맞는다. 세족식과 편지 낭독, 위문공연, 서예 · 서각 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가족이 참석하지 못한 수용자를 위해 교정협의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이천시 장애인협회 자립생활센터에서 무료 일일카페를 운영해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 직원식단 개선을 통한 급식 만족도 제고 및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

직원식당 담당 근무자로 직원식단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청결한 위생관리와 조리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정시설 내 봉사 모임을 통해 불우 수용자에게 영치금과 종교서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교정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서울



### 원칙에 입각한 근무로 교정사고 예방

보안 애근부 정문 담당 시 정문을 통과하는 사람 ·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검색으로 부정물품 반입 방지에 크게 공헌했다. 또한 외부병원 근무 시 외부병원 진료 수용자에 대한 특이 정보를 파악하고 사전에 도주로를 검색하고, 보안과 애근부 취사장 근무 시에는 주방용 칼 등의 작업도구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 유기적 정보 공유를 통한 교정사고 예방 및 시설 개선 기여

출정과에 근무하면서 출정 전후 수용자들의 동정사항을 세밀히 파악해 직원들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정사고를 예방했다. 또 평소 출정 업무 수행 중 시설의 취약점을 파악해 법정대기실의 출입문을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에 기여했다. 평소 각종 동호회 활동과 직원 애경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직원과의 화합에도 적극 앞장섰다.

대전

### 성실한 교정 장비 관리로 보안 및 방호 안정 기여

보안과 교정 장비 서무 업무 담당으로 교정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성실하게 관리해 보안 및 방호 안정에 기여했다. 또 지속적인 교정 장비 직원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외부 의료시설 근무 시 IP카메라와 위치추적전자장치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교육에 힘쓰면서 교정행정 발전 및 교정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광주

##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

“

### 범죄 저지른 아이들의 안내자

직장인 김혜숙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2학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는데 어느덧 아이들이 훌쩍 커 버린 것 같네요. 몇 년 동안 아이들이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애쓰다 보니 청소년이나 학교와 관련된 뉴스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은 왕따, 폭행 등 무수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된 것처럼 눈물이 나고 답답했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 혹은 가해자였으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둘째 딸에게 언제 술을 가르쳐야 할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청소년 범죄와

교도소 이야기까지 주제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 교정공무원이 있다는 것도요. 수많은 교정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교정교화 안내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조금 미안한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건 다 교정공무원분들 덕분이겠죠. 부모가 해 주지 못한 감정적 부분을 열어 보고 아이들을 교정교화한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됩니다. 상상만 해도 교정공무원분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줍게나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 교정 낱말퀴즈

월간 <교정> 이번 호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가로열쇠

① ○○○○○○○○○○ 제도는 재활 의지가 강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출소 전 기업체와 채용 약정을 체결하고, 협진행률을 10% 내외 범위에서 원회해 가석방을 실시하는 것이다. 가석방과 동시에 해당 기업체에 취직하는 새로운 사회 복귀 시스템이다.

② 스칸디나비아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나라. 여름 하지 전후로 이 나라에 가면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을 볼 수 있다. 거리 곳곳 고풍스러운 중세시대 건축물이 잘 보존돼 있으며 1년 내내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키루나가 대표 관광지다.

③ 심리학 용어로 상담이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뢰와 친근감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간관계를 말한다.

④ 에이브러햄 링컨의 ○○○○○ 연설은 “국민의 국민에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며,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힌다.

### 세로열쇠

① 이것은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에서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적성과 취미, 연령 등에 맞게 실시하는 기술교육을 말한다.

② 미국 남북전쟁은 관세와 노예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돼 발생한 내전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연방 보존과 점진적인 노예 해방을 목표로 ○○○○을 지도해 승리를 이끌었다.

③ 러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소설가이자 사상가다.『부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등이 대표작이다.

④ 아스트리드 ○○○○은 『말괄량이 소녀 뼈베』를 창작한 동화작가다. 그가 태어난 나라에 가면 이 작가에게 헌정된 어린이박물관 유니버케이션이 있다.



### ★ 정답 보내실 곳 ★

독자 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거나, 상단 QR코드를 통해 참여 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답을 적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아래 E-mail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을 적어 보내주신 분께는 월간 <교정>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전화 02-2272-1190 E-mail correct2015@naver.com



# 함께 만들어 가는 월간 <교정>

월간 <교정>은 독자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교정>지의 편집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독자의 소리

책도 사람을 만들지만 좋은 영화 역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끔은 좋은 영화를 추천해 주면 좋겠습니다.  
– 조용원 님(대전교도소 교사)

교정 홍보를 위해 항상 고생하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하우현 님(경북직훈교 교도)

항상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해요.  
– 강승열 님(교정직 9급 임용후보자)

## 지난 호 퀴즈 정답

①국	립	모	스	크	④퇴
민				②형	집 행 범
국	②관				성
가	태				무
선	③기	③소	유	예	률
언		년			관
		법			절
④합	심				염



최승욱 님(대전교도소 교우)  
안상현 님(정읍교도소 교사)  
하우현 님(경북직훈교 교도)  
이용관 님(광주교도소 교사)  
정성수 님(여주교도소 교우)

– 안상현 님(정읍교도소 교사)

교정을 행복을 살고 코너에 영월교도소의 직원 공연과  
공연팀(뮤지컬배우 등)이 공연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적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정말 힐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칭찬합니다!

– 어윤식 님(여주교도소 교우)

매월 책 한 권 읽기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만 월간  
<교정>만큼은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정직 소  
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합니다. 다음 달 월간 <교정>도 월급날만큼  
기다려집니다!

– 이현진 님(진주교도소 교도)

‘교정은 행복을 싣고’에 참여해주세요

월간 <교정>이  
**‘행복을 싣고’**  
**지역사회에**  
**다가갑니다**

월간 <교정>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정인, 동호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원해 봉사 현장에 행복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월간 <교정>과 함께 행복을 배달하세요!

## 참여방법

월간 <교정> 내 엽서 이용, 이메일\_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월간 <교정> 내 QR코드 스캔

GS 25



모바일 직불결제 제로페이

zero Pay



전국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mart24

